

자
습
서

정
답
친
해

고
등
국
어 상

(박안수 외) 1~5 단원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1) 자화상

확인 문제

013쪽 1 ③ 2 ⑤ 3 ⑤ 4 우물

1 이 시의 화자는 우물 속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며, 이와 대조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물 속 풍경과 현실을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2연과 6연에서 우물 속 자연 풍경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② '파아란 바람이 불고'에서 공감각적 심상인 촉각의 시각화가 일어나고 있다.

④ 화자는 자신에 대한 미움과 연민, 그리움을 교차적으로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고, 마지막에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⑤ '사나이'라는 시어, '사나이가 ~버니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산모퉁이'는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반면 '달, 구름, 하늘, 바람'은 우물 속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공간을 묘사할 때 활용된 시어로, 쓸쓸하고 초라한 화자의 모습과 대비된다.

3 **완자쌍의 풀이**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대조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미움을 느끼고 있어, 그 미움은 연민으로, 연민은 그리움으로 변하는데, 이는 순수했던 자신의 옛날 모습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라고 할 수 있어. 이 시의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바라보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연민, 그리움을 교차적으로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궁극적으로 자아 성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이 시의 화자는 '우물'을 매개로 자아에 대해 인식하고 성찰하면서 태도와 심리가 변화하며, 결국 잊고 지냈던 내면의 순수성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우물 속은 '달, 구름, 하늘, 바람'이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공간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자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 이상적인 공간은 우물이라 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020~021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⑤ 07 ④

01 2연은 우물 속에 비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는 화자의 모습과 대조된다. 우물 속 풍경은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적 공간에 가까우며, 화자의 후회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6연에서 화자는 오히려 과거의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아야 한다.

02 이 시는 우물 속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현실 속 '한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을 대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버니다'의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현학적인 문체란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듯이 드러내는 문체로,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말한다. 이 시에는 현학적인 문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우물을 들여다보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시의 공간은 우물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때 화자는 미움과 연민, 그리움을 번갈아 가며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고조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시는 '사나이가 ~버니다.'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적 리듬감을 주면서, 화자의 심리 변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03 ⑥는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시의 시대 현실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반영론적 관점이다. 작품을 읽고 독자 자신의 삶에 적용할 교훈을 얻는 것은 효용론적 관점인 ④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②, 표현론적 관점으로 시를 감상한 것이다.

③ 시의 구조와 같이 작품 그 자체의 내용이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③, 절대론적 관점으로 시를 감상한 것이다.

④ 시의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거나 작품 그 자체의 내용이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④, 절대론적 관점으로 시를 감상한 것이다.

⑤ 시의 내용을 독자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보는 것은 ⑤, 효용론적 관점으로 시를 감상한 것이다.

04 화자는 논가의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즉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물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며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화자가 우물 속에서 사나이의 모습을 들여다본 이유는 자아 성찰을 위해서이다.


② 사나이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며, 사나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성찰하여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③ 사나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과거의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내고,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화자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시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우물 안의 풍경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이지만, 화자가 현실에서 떠나고자 하는 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05 화자는 우물 속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서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앞에서 '사나이'를 미워했다가 연민을 느끼고, 다시 미워하며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던 화자는 6연에서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06 <보기>의 해석에 따르면, 이 시의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이다. ⑤의 '하늘' 역시 현실(지상)과 대조적인 세계로, 화자가 현실을 벗어나 도달하고 싶은 초월적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07  **완자쟁의 풀이** 이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글에서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에서 해석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타당한지를 모두 주의해서 보아야 해. 밑줄 친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④는 글에서 '나'가 어렸을 적 살았던 오래된 집이 집 자체(외면)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내면) 신비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여겨졌다는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책 속에 길이 있다

확인 문제 ①

025쪽 1 ③ 2 ④

1 글쓴이는 가운데 ②에서 정보 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처음 ①~③에서 책 읽는 시간에 행복을 느꼈으며 어린 시절의 결핍을 충족해 준 것은 책 읽기였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가운데 ①에서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글쓴이는 가운데 ②에서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가운데 ①에서 책 읽기를 통해 청소년기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으며,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된다고 하였다.

2 글쓴이는 가운데 ④에서 아무리 세상이 새로운 것을 쏟아 내어도 청소년기에는 비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외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모자람을 채워 간다면 스스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 해답은 '책 읽기'라고 말하고 있다.

확인 문제 ②

027쪽 1 ① 2 ③ ④ 3 ④ 4 ③

1 이 글에 따르면,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과 같이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키워 주지는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게 한다. 반면 책 읽기와 같이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해내면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 준다. 따라서 책 읽기가 게임하는 방법에도움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완자쟁의 풀이** ③, ⑥를 '비늘', '지평'처럼 한 단어로만 쓴다면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겠지? 주판식 문제를 풀 때는 조건도 꼼꼼하게 눈여겨보아야 해. 글쓴이는 끝 ①에서 우리의 눈에 경험이라는, 편견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비늘이 덮여 있으며, 이 비늘을 벗겨 주는 것은 좋은 책이라고 하였다. 또한 좋은 책을 읽으면 시야에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린다고 하였다.

3 좋은 책은 경험과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책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글쓴이가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 하기 쉽고 즐거운 일은 정신적 능력을 키워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4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책 읽기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됨을 의미한다. 이 '길'에서는 앞서 언급한 책 읽기의 장점들을 얻을 수 있다. ③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풍요는 책 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길'의 의미와 가장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끝 ①에서 책 읽기를 통해 편견이라는 생각의 비늘을 벗길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가운데 ㉠에서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가운데 ㉡에서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책 읽기를 통해 정신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가운데 ㉢에서 책 읽기를 통해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문제

034~037쪽

- 01 ③ 02 ① 03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③ 05 ④ 06 ① 07 ② 08 ④ 09 ⑤ 10 ⑤
 11 ⑤ 12 ④

- 01 '고사'는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이나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를 말한다. 이 글에는 글쓴이의 경험만 나타나 있지, 옛날의 어진 인물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마)의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길이'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비유한 것으로, 이 말을 통해 독서는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다)의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라)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가)~(다)에서 책 읽기의 가치를 느꼈던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⑤ 글 전반에서 '-버니다', '-요' 등의 부드러운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 02 (가)에서는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가 서울을 동경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고향의 자연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으로 보아 서울을 동경하여 고향을 떠나려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 글쓴이가 어린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이유가 학교에서 했던 책 읽기 활동 때문이었음이 드러난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정서적, 경제적 결핍을 책 읽기로 충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경험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⑤ (마)에서 글쓴이는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하며 평생 책을 벗어나서 살 것을 완곡하게 권하고 있다.
- 03 청소년기에 느끼는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책 읽기가 해답이라고 한 이유는 (라)에 나타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주술 호응이 맞는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04 (가)에서 책 읽기는 흠어져 있고, 넘쳐 나고, 흘러 다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안목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책 읽기가 수많은 정보를 모두 수집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05 (나)를 보면, 문학 작품을 읽으면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지식을 후대에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06 (마)에서 좋은 책은 편견이라는 비늘을 벗겨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좋은 책 읽기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한 독자의 반응은 적절하다.
- 07 ①은 무조건 많은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의 속담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이 속담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장님 코끼리 말하듯 - 일부분을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대한다는 말이다.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가랑잎이 술뿔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08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 읽기 모둠 활동을 할 때, 모둠이 합의한 진로나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책의 경우, 책 읽기 활동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모둠원이 합의하여 책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9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에는 모두의 관심사를 다룬 책인지, 주어진 시간 내에 읽기에 적절한 분량인지, 독자들의 독서 수준에 맞는지,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만, 책의 글쓴이나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유명한 책이 어도 모둠 구성원들이 원하는 정보가 없을 수도 있다.

10 **10** **안자생의 풀이** 이 책을 고른 것은 토론 후의 일이다. 토론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되었는지 살펴봐.
(가)에서 해당 책을 선택한 이유는 복지의 개념을 알고, 사회 복지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11 (나)에서 책을 읽은 후, 읽은 책과 관련한 진로 활동 계획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덴마크의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비교'하는 활동은 책을 읽으면서 한 활동으로, 책 읽기 후 수행할 진로 활동 계획은 아니다.

11 **오답풀이** ① (나)의 4문단에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했던 복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이라고 하였다.

② (나)의 3문단에서 '내가 사회 복지사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③ (나)의 4문단에서 '삶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라고 하였다.

④ (나)의 4문단에서 '복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즐거운 경험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12 신문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읽어 보았던 모든 책의 제목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다.

대단원 평가 문제

042~045쪽

- 01 ① 02 ② 03 ③ 04 ③ 05 ④ 06 ① 07 ⑤
08 ① 09 ③ 10 ③

01 이 시에서 화자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반복하며 심리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01 **오답풀이** ② 관조적인 자세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시의 화자는 자아를 성찰하며 심리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관조적인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내적 갈등 끝에 자신과 화해를 이루기는 하지만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지는 않다.

③ 현실의 모습이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과 대조되기는 하지만, 현실에 대한 거센 비판 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경어체는 상대를 공경하는 뜻으로 말하는 말투나 어조를 뜻한다. 이는 독자가 읽을 때 느껴지는 것이며 시적 대상인 우물 속 풍경이나 화자 자신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고된 삶을 수용하려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02 자문자답의 방식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의 화자는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문자답의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보기>는 「자화상」의 '사나이'가 운동주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 시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시인의 부끄러움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하였다. 이는 작품을 작가의 창작 의도, 창작 동기, 작가의 삶과 관련하여 감상한 표현론적 관점이다. 따라서 전기문을 읽어서 운동주의 생애가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③이 가장 적절하다.

03 **오답풀이** ① 일제 강점기 민중의 삶을 주제로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은 당대 현실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반영론적 관점이다.

② 화자의 심리 변화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절대론적 관점이다.

④ 화자의 태도를 본받아 독자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은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독자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이다.

⑤ 「자화상」과 시대적 배경이 동일한 시를 찾아 당시의 암울한 시대 현실과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조사하는 것은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대 현실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반영론적 관점이다.

04 ⑧ 「참회록」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느끼는 부끄러움과 고뇌를 담고 있다. ④의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는 구절은 과거 추억 속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⑧의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맞게 될 어두운 미래와, 그 사람이 가지는 비극적·희생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04 **오답풀이** ① ④의 화자는 우물을 매개로 자아 성찰을 하고 있고, ⑧의 화자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②, ④ ④의 '우물'과 ⑧의 '구리 거울'은 화자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모두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다. 따라서 ④의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과 ⑧의 화자가 거울을 닦는 것은 모두 자아 성찰을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⑤ ④의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것과 ⑧의 자신의 모습을 '이다지도 욱될까'로 표현한 것은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의 부끄러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 운동주, 「참회록」

| | |
|----|---|
| 갈래 |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자기 성찰적, 고백적, 상징적 |
| 주제 | 부끄러운 자기 삶의 참회와 고난 극복의 의지 |
| 특징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거울의 상징성을 통해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 줌 |

05 이 글은 (가)의 '그때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나)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서 질문의 형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06** (가)에서 글쓴이가 어린 시절 느꼈던 곁핍을 충족해 준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책 읽기였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에게 대해 글쓴이는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④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며 자유 교양 문고를 읽고 독후감을 쓰던 시절을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다.
 ⑤ (다)에서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가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 07** (나)에서 책을 읽으면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 08** 정보를 장소에 구애 없이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매체는 책보다는 인터넷이다. 하지만 글쓴이는 인터넷이 아무리 정보의 바다라고 하여도 가치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 09** 세상이 책 읽기를 강요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정신적 능력을 키워 주지는 못하고, 책 읽기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정신적 능력을 길러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 10** <보기>는 ‘독서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삼라만상의 온갖 볼거리와 일상의 이런저런 일들이 모두 독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책 읽기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독서에 포함되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책의 종류를 한정하여 읽기를 권하지는 않았다.
 ② 이 글에서는 꾸준한 독서를 장려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다양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책이므로, 책을 불태우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였다.
 ⑤ <보기>에서는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이 독서라고 하면서, 독서가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01 ② 02 ③ 03 ④ 04 ③

- 01** (가)는 우물을 매개로 한 화자의 자아 성찰과 고백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나)는 화자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성찰과, 시련에 대한 강한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화자는 과거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는 고난 극복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나)는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진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화자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긴 하지만, 회상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자의 삶을 구체화하거나 진실성을 부각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는 화자를 ‘사나이’라고 표현하며 관찰자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으나, (나)는 화자 자신의 삶을 고백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는 우물 속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서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의 모습과 이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고 있지만, (나)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서정주, 「자화상」

| | |
|----|--|
| 갈래 |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상징적, 격정적 |
| 주제 |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회고와 그에 좌절하지 않는 강렬한 생의 욕구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백적이고 의지적인 강렬한 어조가 나타남 • 간접적인 묘사보다 대상과 관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함 |

- 02** [A]에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의 설명은 간접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대상을 보는 직접 경험을 통해 화자의 심정에 공감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A]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03** ㉠의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의 현재 모습으로, 현상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나이’의 모습을 보고 자아를 성찰하는 화자가 반성적 자아에 해당한다.

- 04** (다)와 <보기> 모두 독서의 장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영상 문화에 대한 것으로, 독서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마음을 잇는 소통의 창

(1) 매체를 읽는 눈

확인 문제

059쪽 1 ㉠ 매체 ㉡ 인쇄 매체 ㉢ 방송 매체 ㉣ 디지털 통신 매체
2 ㉤ 3 ㉠ 4 ㉢

1 매체는 정보를 담은 그릇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매체의 유형으로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 등이 있다.

2  관자샘의 풀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을 땐 그 자료에 담긴 필자의 관점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는지와 그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 또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믿을 만한지(신뢰성)와 글쓴이의 생각이 보편적으로 옳은 것인지(타당성)를 살피고, 저속하거나 상업적인 내용을 담고 있진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 자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매체 자료가 지나치게 상업적이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 (가)는 통계청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고, (나)는 사회학과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4 매체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며 읽는 것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다. 신문 기사의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를 위해 직접 1인 가구를 찾아다니며 통계를 내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였으므로, 말의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가)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요인 중 하나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를 꼽고 있으므로, 두 현황을 비교하며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에서 2005년과 2010년의 다른 가구 형태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에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말하며 이를 1인 가구 확산의 요인으로 꼽고 있으므로, 노인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문제

066~06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10 ㉢ 11 ㉢ 12 ㉡

01 이 광고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대화, 가족, 열정, 관심’을 잃었다고 말하며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02 이 광고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그것의 출처를 밝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자막에 빈칸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② 남녀가 마주한 상황, 생일을 축하하는 상황, 운동 경기를 응원하는 상황, 결혼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앞부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장면을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장면을 제시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했을 때의 좋은 점을 일깨우고 있다.


03 이 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의 이미지 등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업 광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 광고이다. 그러므로 이 광고가 신상품을 독자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목적에 알맞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항목으로, 이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이므로 보편 타당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영상 광고는 시청각적 요소를 모두 설득에 활용하는데, 이 광고는 화면에 비친 장면 및 자막이라는 시각적 요소와 내레이션이라는 청각적 요소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④ 매체 자료에 드러난 모습과 현실과의 관련성을 비교해 볼 때,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부정적인 장면에서 긍정적인 장면으로 전환되는 마지막 순간에 주제를 담은 메시지를 청각적으로 제시하여 제작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04  관자샘의 풀이 광고는 종류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라. 인쇄 광고는 주로 문자·그림·사진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설득하고, 라디오 광고는 음성과 음향을 사용해서 청각에 호소하지. 영상 광고는 시청각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광고는 영상 광고로, 시각적인 이미지와 소리를 모두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는 특징을 가진다. 소리만으로 광고의 주제를 전달하는 것은 라디오 광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5 인터넷 매체는 이미지와 하이퍼링크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인터넷 기사에는 이미지와 하이퍼링크가 사용되지 않았다.

요답 풀이 ① 인터넷에는 불확실하고 자극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을 때도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②, ③ '충격'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기사의 제목만 본 사람들은 음식점 주방의 문제점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사 내용은 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는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방해하는 제목이다. ⑤ 인터넷 기사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충격'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어로 표제를 작성한 이유는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6 표제는 기사의 제목으로,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해야 한다. 부제는 표제에 덧붙이는 제목으로 내용을 한정하거나 보충해야 한다. 제시된 인터넷 기사의 주된 내용은 맛집의 비결은 바로 청결이며, 음식을 만들 때의 기본 원칙인 청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07 (가)는 널리 알려진 미술 작품을 위아래층의 주민을 연상시키듯이 배치하여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광고의 의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자로 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문자가 시각 이미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시각적 이미지보다 문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미지의 사용을 절제하면서, 일반적인 광고 문구와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는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8 구겨진 종이와 청테이프는 강렬하거나 세련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쇄 광고의 특성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인쇄 광고의 특성을 뒤집어 독자들에게 역발상의 충격을 줌으로써 독자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요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쇄 광고는 강렬하거나 세련된 이미지를 다채롭게 사용하여 독자들의 집중을 유도하고, 광고 문구는 단순하고 쉽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낡고 허름한 이미지를 문자의 배경으로 이용할 뿐 이미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긴 광고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를 '역발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광고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들이 정보를 받아들

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는 독자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④ (나)의 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광고의 메시지가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쇄 광고의 특징을 뒤집는 것이므로 '역발상'의 충격을 주어 오히려 호소력 높은 광고가 될 수 있다.

⑤ 부정형 표현은 독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전할 가능성이 있어 광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광고의 제작자는 의도적으로 부정형 표현을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려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09  **인자백의 풀이** 광고는 종류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라. 인쇄 광고는 주로 문자·그림·사진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가)는 잘 알려진 그림을 위아래로 배치하여 나에게는 음악처럼 들리는 소리일지라도 남에게는 듣기에 고통스러운 소음이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짧은 글을 통해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나)는 일반적인 인쇄 광고의 특성을 뒤집어 이미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한 편의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각각의 제작 의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주제를 찾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주술 호응에 맞는 완성된 문장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0 이 글의 글쓴이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희극 프로그램에서 외모를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다. 글쓴이는 여러 계층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극 프로그램에서 외모적 특징을 웃음거리로 삼아서 외모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11 글쓴이는 희극 프로그램에서 외모를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옆집 여자가 자동계단을 밟는 순간 계단이 평평해져 자동길이 되거나, 남자가 옆집 여자의 걸옷을 보며 천막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등의 프로그램 내용을 예로 들면서 관련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2 ㉠은 앞뒤 문장의 관계상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사인 '그런데'가 적절하다. '그러나'로 고치면 앞뒤 문장의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어야 하므로 '그러나'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책임감 있게 글 쓰기

확인 문제 ①

073쪽 1 ④ 2 글쓰기 윤리 3 ⑤

- 1 '윤서'가 수행 평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부분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베껴서 제출해도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한 행위이다.

【오답풀이】 ①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찾은 것은 쓰기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②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쓰기 윤리와 상관없는 행위이다.

③ 과제를 하기 위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쓰기 윤리와 상관없는 행위이다.

⑤ 컴퓨터로 자료를 찾은 행위가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생각한 행위는 모두 쓰기 윤리와 상관없는 행위이다.

- 2 '처음 ①'을 보면,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글쓰기 윤리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나뉜다.

- 3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이다. 학교 누리집에 있는 자료를 내려받아 친구에게 전달한 행위는 글쓰기 윤리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③, ④ '가운데 ②'에서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가운데 ②'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역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하였다.

확인 문제 ②

075쪽 1 ④ 2 ⑤ 3 ②

- 1 '가운데 ③'에 따르면,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이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 실험 결과나 자신의 경험을 조작하지 않고 사실대로 쓰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킨 행위이다.

③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때 출처 표시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쓰기 윤리를 지킨 행위인지 위반한 행위인지 판단할 수 없다.

⑤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이다.

- 2 이 글은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글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글을 쓰는 태도가 바로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자세임을 말하고 있다.

- 3 이 글의 글쓴이는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을 재미있게 쓰는 것은 이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끝 ②'에서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면 되는 것이라 하였다(③). 특히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하며(④),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⑤)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문제

080~083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진실하지 못한 글은 글쓴이의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06 ⑤ 07 ② 08 ③ 09 ③ 10 ② 11 ② 12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처럼 파급력이 강한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13 ① 14 ④ 15 ③

- 01 이 글에 글쓰기 윤리가 형성된 배경이나 이에 따른 한계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⑤ (라)에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하며 글쓰기 윤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글쓰기 윤리의 개념을, (다)에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서 윤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02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쓰는 도리를 말한다. 친구가 쓴 글을 읽어보고 조언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하였다.

03 (가)에는 ‘윤서’가 수행 평가 과제를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 (나)에서 ‘윤서’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가)의 사례자가 문제 행동을 한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라)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⑤ (나)에서 글쓰기 윤리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분류한 것은 맞으나, (다), (라) 모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④ (다)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다.

04  **완자샘의 풀이** <보기>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인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하고 있고, (가)는 글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윤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기>의 글쓰기 윤리를 ‘윤서’의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여야 해. <보기>의 글쓰기 윤리를 바탕으로 ‘윤서’가 한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윤서’가 글쓰기 윤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도록 해. <보기>에서 참고 자료를 제시할 때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하지만, 널리 알려진 자료일 때는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6~7행에서 원문을 자신이 쉽게 풀어 쓸 때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② <보기>의 7~8행에서 원문과 비슷하게 풀어 쓸 경우에는 직접 인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④, ⑤ <보기>의 9~11행에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인용문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왜곡하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한 부분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05 (라)에 따르면, 진실하지 못한 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등의 허위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글쓴이의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6 ‘수아’는 더 큰 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과장해 글을 쓰려 한다. 이는 진실하지 못한 글을 쓰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여 글을 쓰려 하므로, 이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② 진실하지 못한 글을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에 올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보기>의 ‘수아’는 인터넷이 아닌 백일장에 진실하지 못한 글을 써서 제출하려 하고 있으므로,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는 (다)에서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더 큰 감동을 이끌어 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위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면 안 된다고 하여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남이 쓴 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출하는 행위는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이지만, <보기>의 ‘수아’는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글을 쓰려 하므로 조언의 내용으로 맞지 않다.

07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이다. 따라서 내용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는지,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태도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ㄷ과 ㄹ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제시된 지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08 (나)에 따르면,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표절이다. 그러나 버지니아 울프는 첫 소설 「출항」을 완성하는 데 7년이나 걸릴 정도로 노력했으며, 표절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②, ④, ⑤ (라)에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 결정이나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09 변형을 가하더라도, 작품의 일부분을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가져다 쓰는 것은 표절 행위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서약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0 ‘민수’는 다른 보고서의 자료를 자신의 것인 양 그대로 사용하였고, ‘연희’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게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즉 ‘민수’와 ‘연희’는 모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하였으므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1** 오답풀이 ① ‘민수’의 글은 다른 보고서의 자료를 자신의 것인 양 추가한 것이기에 정직성을 갖춘 글로 보기 어렵다.
 ③ (가)에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때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연희’는 시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⑤ 불특정 다수가 게시글을 볼 수 있고 또 손쉽게 공유하기 때문에 블로그는 파급력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체에 글을 쓸 때는 신중해야 한다.

11 (나)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버지니아 울프의 사례를 통해 창작의 고통을 일깨워 주면서, 표절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작품이 표절당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12 (마)에서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이며, 특히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함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3 [A]는 글을 쓰기 위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버지니아 울프의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깊이 잘 생각함’이라는 뜻의 ‘심사숙고(深思熟考)’가 가장 어울린다.

- 1** 오답풀이 ② 전화위복(轉禍爲福) -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④ 언중유골(言中有骨) -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음을 이르는 말
 ⑤ 풍수지탄(風樹之歎)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14 글쓴이는 ㉠에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쓰기 윤리를 지키는 태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글쓰기의 과정에서 가장 쉬운 일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5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인용할 때 따옴표로 인용된 문장임을 표시하고, 원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글쓰기 윤리를 준수한 예이다.

(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확인 문제

- 091쪽 1 ㉠ 요령 ㉡ 관용 ㉢ 찬동 ㉣ 겸양 ㉤ 동의 2 ③ 3 ④ 4 ① 5 ⑤

1 공손성의 원리의 다섯 가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대화의 원리에는 요령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과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이 있다.

2 ‘찬우’는 ‘지호’와 함께 저녁을 먹기를 원했지만, ‘지호’는 가족들과 약속이 있어서 함께 먹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호’는 ‘같이 저녁 먹으면 좋지.’라고 하여 상대방에 동의함을 밝힌 후, 저녁 대신 음료를 마시자고 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3 <보기>의 대화에서 처음에 ‘경수’는 ‘저는 원래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거든요.’라고 하며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를 수정하였을 때는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며 자신을 낮추었다. 이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겸양의 격률을 고려한 것이다.

1 오답풀이 ① 순서 교대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가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②, ③ 협력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양의 격률은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⑤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4 남학생은 여학생이 축제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도중에 그것을 가로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으며, 이에 여학생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이 실수한 점은 상대방의 말을 가로챈 것으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1 오답풀이 ②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③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④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⑤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5 협력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을 고려해야 한다. 대화할 때 대화 순서에 유의하여 말해야 하는 것은 순서 교대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대화 순서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

01 ③ 02 ① 03 ㉠ 요령의 격률 ㉢ 관용의 격률 04 ③
 05 ④ 06 ⑤ 07 ① 08 ④ 09 ③ 10 ② 11 ④
 12 ④ 13 ④ 14 ④ 15 ③ 16 공감하며 듣기를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01 '지호'는 '찬우'의 의견을 물어보며 선택권을 부여하여 '찬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요령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오답풀이 ① 찬동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② 겸양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④ 관용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은 상대방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관용의 격률보다는 요령의 격률에 더 가깝다.

⑤ 동의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02 관용의 격률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은 친구를 위해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기로 하였으므로 관용의 격률에 따라 대화한 것이다.

03 **관자쌍의 풀이** 먼저 <보기>의 상황을 분석해 보. '발표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같은 상황에서 '청중 1'과 '청중 2'는 각각 다르게 대응하고 있어, 공손성의 원리를 떠올리며 두 사람의 말을 비교해 보자.

'청중 1'은 자신이 잘 듣지 못한 것의 책임을 상대방의 목소리가 작은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령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중 2'는 못 들은 책임을 자신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고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므로 관용의 격률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은 상대방의 자세를 칭찬하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잘 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한 찬동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05 ㉡에서 '지호'는 자신의 자세가 좋고 더 잘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를 <보기>와 같이 고치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을 고려한 것이다.

06 ⑤에서 '태희'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자는 '민수'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오히려 높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내일 도서관에 가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07 순서 교대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켜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하여 말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8 <보기>의 '민기'와 '주현'은 체험 학습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기'는 말해야 하는 시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주현'은 주로 자기 이야기만 할 뿐 아니라 '민기'의 말을 가로채고 있다. 즉 두 명의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는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09 '은채'는 친구가 요구한 정보인 점심 식사 이외의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불필요하게 많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채'에게는 대화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필요한 양만 말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요령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필요한 조언이다.

②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필요한 조언이다.

④ 겸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필요한 조언이다.

⑤ 동의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필요한 조언이다.

10 (가)에서 '현표'는 '규비'에게 색연필을 빌려야 하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여 지금 바로 색연필을 달라고 명령조로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유범'은 '규비'에게 색연필을 빌릴 때 '규비'네 모뎀이 색연필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규비'네 모뎀도 필요한 게 있으면 자신의 모뎀에서 빌려주겠다고 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에 따라 말한 것이다.

③, ④ (나)에서 '유범'은 '규비'에게 색연필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 인지를 먼저 물어보며 선택권을 주고 있다.

⑤ (가)에서 '현표'는 '규비'에게 색연필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비'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이고 거칠게 말하고 있다.

11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때는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나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거나 변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로 보기 어렵다.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7 ⑤
 08 ③ 09 ④ 10 '아들'이 자신이 말할 순서에 아무말도 안 하여 순서 교대의 원리를 위반하였으므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1 ⑤ 12 ④ 13 ⑤

12 (다)의 '요리사'는 자신의 직업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민주'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따라서 '요리사'는 시청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가)에서 '할머니'는 '민주'를 '똥강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아이를 예뻐하면 귀신들이 시샘해서 해코지할까 봐 일부러 하찮은 이름으로 불렀던 소통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는 '할머니' 세대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자신을 더러운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생각하여 토라지고 있다.

③ '민주'는 '오빠'를 '오라베'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방언을 사용한 것이다. '오빠'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민주'에게 누가 왔냐고 되물어보고 있다.

⑤ '민주'는 '요리사'가 말하는 전문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13 **완자샘의 풀이** (가)~(다)에는 공통적으로 방언이 사용되고 있어. 이중 (나)는 지역 방언이고 (가), (다)는 각각 세대와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이야.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각 방언의 특징을 떠올리며 선지를 확인해 보자.

(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라딩, 브레이징' 등의 단어는 특정 분야의 전문어로, 정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끼리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밖의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14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성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역 방언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표현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5 제시된 대화는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서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것이 정당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병문안에 와서 다친 환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말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친구가 입원했을 때는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적절하다.

16 <보기>에 제시된 공감하며 듣기의 효과를 파악하여 두 가지로 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상대방과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1 (다)와 (라)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의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마)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의 개념을 설명하며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02 (가)와 (나)는 신문 기사이다. 이러한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 자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특히 필자의 관점이나 의도가 무엇이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는지 파악한 뒤,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03 (가)에서 1인 가구가 5년 동안 99만 가구가 늘어났음을 파악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한 것이므로 '명시적 정보 파악하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의 내용을 막대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그래프는 수량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② 2015년 1인 가구의 비율이 27.2퍼센트임은 자료에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한 것은 '명시적 정보 파악하기'이다.

④ <보기>에서 시각 자료는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는 1인 가구 확산 요인을 고령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 정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어떤 현상의 원인, 즉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암시적 정보 추론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4 '미영'은 어제 읽었던 국민일보 기사((나))를 이야기하며, '민주'의 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문 기사의 내용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미영'이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05 '선생님'은 '유환'에게 더 많은 토론 경험을 쌓기 위해 토론 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대표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유환'은, 더 많은 경험을 쌓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여 전국 토론 대회 대신 교내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은 최대화한 '동의를 격률'을 사용한 대화이다.

오답풀이 ① '유환'을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② '유환'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06 공손성의 원리 중 '관용의 격률'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는 '요령의 격률'을, 자신에게는 '관용의 격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관용의 격률'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 방식이며,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07 ㉠은 '요령의 격률'에 따라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며 상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하며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는 '찬동의 격률'에 따라 지난번보다 시험 점수가 많이 올랐고, 노력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며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다. ㉢는 '겸양의 격률'에 따라 자신이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좋게 봐주셨다고 말하며,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고 있다.

08 '은혜'는 '민희'에게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묻고 있다. 그러나 '민희'는 도서관에 재미있는 책이 많다고 하면서 '은혜'에게 같이 도서관에 가자고 말한다. 이는 '민희'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한 것으로,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09 <보기>의 ㉠에서 '삼촌'은 ○○ 계곡에 안 가 봤지만, 마치 그 계곡에 대해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아들'은 지난여름 휴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② ㉡에서 '딸'은 '아들'의 말을 가로채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하여 말해야 하는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③ ㉢에서 '어머니'는 '딸'이 지리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칭찬하며, ○○ 계곡에 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찬동의 격률'에 해당한다.

⑤ ㉤에서 '아버지'는 여름 휴가 장소를 정하는 가족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10 <보기>에서 '아들'은 '엄마'가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아들'이 자신의 차례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아들'이 순서 교대의 원리를 위반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1 '학생'은 '교장 선생님'이 시험 공부가 잘되어가냐고 묻는 질문에 '학교에 우산을 비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의 주제에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12 말하는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면 대화 상대는 이 말을 쉽게 수용할 수 없다. '학생'은 '교장 선생님'께 부탁이나 건의를 하는 상황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완곡하고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어떤 상황인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말하기는 언어 예절에 어긋난 행위일 수 있다.

13 동일한 의사소통 방법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서로 동질성과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언어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 언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고득점 평가 문제

112~115쪽

-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① 06 ④ 07 ⑤
08 ① 09 ① 10 '경찰'이 '민지'에게 사과하는 상황이며, '경찰'은 대화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을 고려하여 말했다. 11 ②

01 **▶완자쌍의 풀이** (가)는 앞에서 배운 글쓰기 윤리에 대한 글이고, (나)는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 방법을 알리는 글이다.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의 내용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해 보자.

(가)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파급력 있는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신중한 태도로 글을 쓰라고 말하는 등 글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을 숙지하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둘 모두 독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2 (나)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에 따르면,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 중 하나로, 저작권 보호를 통해 권리자에게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그의 의사에 따라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는 글쓰기의 고통을 언급하며,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라고 하였다.

⑤ (가)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통해 글쓰기 윤리를 지킬 수 있으며, 저작권을 보호하면 사회적으로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03 <보기>에 따르면, 출처를 밝혔어도 정당한 인용 방법에서 벗어났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을 남의 저작물로 채웠다면 출처를 밝혔어도 표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서 논문 표절을 통해 학위를 취득했던 사람이 인용한 논문의 출처만 밝혔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 표절의 범위

- 다른 사람의 글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와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글에 사용된 중요한 개념이나 표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말을 편집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자신의 것처럼 서술한 경우
- 그림이나 표,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04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쓰기 윤리를 고려하지 않고 쓴 글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매체이므로 자신의 글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쓰지 말아야 한다. (가)에서도 인터넷은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이므로 신중하게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05 컴퓨터로 글을 쓰면서 자신이 실제로 갔던 곳을 생각하는 장면에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쓰려는 태도가 드러나므로 쓰기 윤리를 위반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06 ㄱ과 ㄴ은 진실하게 글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행위에 해당하고, ㄷ과 ㄹ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행위에 해당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므로, ㄱ과 ㄹ이 아니라 ㄱ과 ㄴ에 해당한다.

07 ㉠에서 '미소'는 노트북을 빌려 간 뒤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상현'에게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태도의 격률'이란 모호

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모호하게 말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상현'은 부탁을 받은 '미소'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완곡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② ㉢에서 '미소'는 자신이 노트북을 더 쓸 일이 없음을 밝히며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요령의 격률'에 해당한다.

③ ㉣에서 '상현'은 빌린 노트북을 비하하여 노트북 주인인 '미소'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으며, 이는 이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④ ㉤에서 '미안하다, 미안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과할 때의 주의할 점을 위반한 것이다.

08 '상현'은 '미소'가 노트북을 쓰고 있지 않을 때, '잠깐만 노트북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미소'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 이는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한 '요령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그러나 노트북을 빌려준 '미소'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는커녕, 구형 노트북을 쓰는 '미소'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위반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09 '민지'는 약속 시간에 늦은 '경찰'에게 화가 난 상태로, 마지막 부분에서 해명을 하려는 '경찰'의 말을 끊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고 발언 순서를 가로채는 것은 '순서 교대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10 '경찰'은 '민지'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자신도 입시 설명회에 가고 싶었으며, 다른 대학교의 입시 설명회에 가자고 하며 서로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동의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참석 예약을 하고 입장권도 받아 놓겠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경찰'이 사과하는 상황임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동의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을 활용하였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1 **👤** **여자샘의 풀이** <보기>에서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했으므로 고친 표현은 차별과 편견을 없앤 것이어야 해. '여작가'와 '여류 작가'는 모두 여자라는 성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성(性) 차별적인 어휘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냥 '작가'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살색'은 인종 차별적인 표현이다.

③ '쪽발이'는 일본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④ '장님'은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⑤ '촌놈'은 시골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 첫사랑

확인 문제

123쪽 1 ㉓ 2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 3 ㉑
4 ㉕

1 **완자쟁의 풀이** 먼저 이 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목이야. 제목은 '첫사랑'인데 시에는 첫사랑이라는 시어가 나오지 않아.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고, 봄이 되어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모습을 상상하며, 왜 이런 자연의 모습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시는 나뭇가지에 내리는 눈과 그 눈이 쌓여 있는 모습, 그리고 봄이 되어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첫사랑의 아픔,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피어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2 이 시에서는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는 눈꽃의 속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첫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3 '꽃'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 피워 내고자 하는 '사랑'을 함축하고 있다. 3연의 '황홀'은 눈이 수많은 도전과 시련 끝에 피워 낸 첫사랑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꽃'과 의미가 통한다.

오답 풀이 ① '눈'은 '눈꽃(첫사랑)'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주제이다.

- ② '춤은 눈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③ '도전'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한 행위를 지칭한다.
- ④ '바람'은 '눈꽃(첫사랑)'을 위태롭게 만드는 어려움과 시련을 의미한다.

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눈꽃이 진 후 그 자리에 피어난 봄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는 첫사랑을 마친 후, '첫사랑(눈꽃)'의 '아픔(덴 자리)'에서 얻은 정신적 성숙을 통해 '성숙한 사랑(봄꽃)'을 이루게 되었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이 시구의 의미로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성숙한 사랑'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은 '참치내 피워 낸 저 황홀'과 관련이 있다.

- ②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1~2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 ③ 언제든 쉽게 끝낼 수 있는 사랑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과 관련이 있다.
- ④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과 관련이 있다.

01 ㉒ 02 ㉕ 03 ㉕ 04 ㉓ 05 ㉓ 06 ㉓ 07 첫 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 역경을 딛고 이뤄 낸 첫사랑의 아름다움
08 ㉓ 09 ㉔ 10 ㉑ 1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원관념 '봄꽃'을 보조 관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로 비유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으며, '아름다운'과 '상처'는 서로 모순되는 말로, '아름 후의 성숙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은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01 이 시는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주제로 하고 있다. 헌신적인 사랑이 만드는 아름다움을 눈이 눈꽃을 피워 내는 자연 현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2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를 전개하려면 청자와 화자가 모두 시에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모순 어법'은 역설법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역설법을 사용하였다.

③ 설의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방법이다. 이 시에서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며'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였다.

④ 이 시에서는 의성어인 '싸그락 싸그락', 의태어인 '난분분 난분분'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03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눈꽃이 진 자리에 터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을 의미하며, 이 시는 봄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시상을 마치고 있다. 따라서 봄꽃이 진 자리에 새싹이 돌아나는 장면은 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은 1연 1행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드러난다.

②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난 모습은 4연 2행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에 드러난다.

③ 나뭇가지 주위로 눈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은 2연 2행의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 드러난다.


④ 나뭇가지에 눈이 달았다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은 2연 3행의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에 드러난다.

04 **완자쟁의 풀이** 두 작품을 비교할 때는 먼저 각각의 작품에 나오는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 「첫사랑」은 앞에서 배운 작품이니까 아는 작품부터 선지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그다음 두 작품을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보기>로 나온 작품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가정된 후에 시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된단다.

이 시의 '눈'은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희생하는 대상은 '나뭇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비'는 '꽃잎'을 젖게 만드는 존재로 시련과 역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 |
|----|---|
| 갈래 |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교훈적, 사색적, 서정적 |
| 주제 | •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완성되는 사랑과 삶 • 역경을 이겨 낸 삶(사랑)의 아름다움 |
| 특징 | • 인간의 사랑과 삶을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인생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각운의 효과 등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05 '사랑'이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것이라는 점은 미숙한 사랑인 첫사랑이 가진 위태로움을 보여 주기 위한 표현이다. 이 시에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이다.

06  **완자쌍의 풀이** 반어법과 역설법을 착각해서 틀릴 수 있는 문제야. 반어법은 본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고, 역설법은 얼핏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야. 이 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부분에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로 역설적 표현이 쓰였어.

반어법은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으로, 이 시에는 반어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이 시에서는 '눈'을 도전하는 사람과 같은 주체로 의인화하였다.

② 이 시의 3연 3행에서는 역경을 딛고 마침내 피워 낸 눈꽃에 감탄하며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의 2연에서는 '-겠지'로 끝나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이 시의 '황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서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는 은유법을 사용하였다.

07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는 눈이 마침내 눈꽃을 피워 낸 것에 대한 감탄으로, 첫사랑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보면 역경 끝에 첫사랑을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첫사랑'을 이루어 냈다는 표현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황홀'에서 연상되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했다. | <input type="checkbox"/> |

08 3연에서는 순간적인 속성을 지닌 눈꽃이지만, 눈이 힘든 도전 끝에 피워 낸 것이기에 눈꽃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09 ㉠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헌신과 노력을 나타낸다. 헌신에 대한 결과로 이뤄 낸 사랑은 '황홀'로 비유된 첫사랑과, '상처'로 비유된 '성숙한 사랑'이 해당된다.


10 '난분분'은 '난분분하다'의 어근으로, '난분분하다'는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리어 어지럽다.'라는 뜻이다.

|오답풀이 ② '사뿐사뿐'에 해당한다.

③ '팔짝팔짝'에 해당한다.

④ '팔랑팔랑'에 해당한다.

⑤ '살랑살랑'에 해당한다.

11  **완자쌍의 풀이** 은유법은 비유법 중 하나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에 기인하여 이루어져. 이 시에서는 원관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전후 문맥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해.

은유법은 'A는 B이다.'의 형식을 취하여 표현하는 비유법이며, 역설법은 언뜻 보기에는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은유법에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밝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역설법에서 서로 모순되는 말을 밝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확인 문제 ①

133쪽 1 ③ 2 ④ 3 ⑤

1 '나'는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올라왔을 터인데도 '권 씨'의 구두가 반짝거린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그러나 그가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다닌다는 점을 못마땅해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에 '권 씨'의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졌음이 나타난다.

② 앞부분 줄거리에 '나'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이며 문간방을 '권 씨'에게 세놓았음이 나타난다.

④ 앞부분 줄거리에 '권 씨'가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았을 정도로 살림살이가 궁색하였음이 나타난다.

⑤ 앞부분 줄거리에 살림이라곤 이불 보따리 하나와 취사도구뿐인 '권 씨'가 구두만큼은 여러 켄레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2 병원으로 옮겨진 '권 씨'의 아내가 무사히 출산을 했다면 '나'를 찾아올 일이 없었을 '권 씨'이기에, '나'를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생겼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으로 현실화된다.

- 3 '권 씨'는 아내의 수술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으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먼젓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두가 빛이 난 것은 바짓가랑이로 구두를 닦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유추해 볼 때 '권 씨'는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권 씨'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 거절당한 상황에서 자신이 배운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확인문제 2

135쪽 1 ④ 2 ② 3 "이래 뻘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

- 1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태도는 다소 도발적이기는 했지만, '나'를 억누르려고 하거나 '나'에게 힘을 행사하려 드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위기 ③'에서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라고 하여 '나'가 남에게 돈을 빌려줄 처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위기 ③'의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큰일을 저질러도 관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나'에게 집안의 경제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위기 ④'에서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라고 하여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권 씨'가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위기 ③'에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십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권 씨'가 빌려 달라는 돈이 빌려주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나'가 '권 씨'의 부탁을 거절했음을 알 수 있다.
- 2 '위기 ③~⑤'에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과, 돈을 빌리려는 '권 씨'와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려는 '나'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참고자료 ++ 소설에서 갈등의 역할

소설의 갈등은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나 인물과 인물, 사회, 운명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외적 갈등과 같은 대립적인 관계를 말한다.

인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건이 나타나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작품의 주제가 드러난다.

- 3 "이래 뻘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는 '나'에게 절박한 심정에서 한 부탁을 거절당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권 씨'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말하는 부분이다. '권 씨'가 자신의 학력을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확인문제 3

137쪽 1 ② 2 ③ 3 ①

- 1 '나'는 수술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 원장의 비인간적인 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라는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나'가 '권 씨'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권 씨'의 처지를 이해하고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 주며 도와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원장'은 너털웃음으로 '나'의 의미심장한 말을 농쳐 버렸다.
 ③ '나'는 '원장'을 비꼰 자신의 말이 원장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④ 원장은 '권 씨'가 수술비를 마련해 오지도 않고 여태껏 얼굴 한 번 안 비쳤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원장은 모든 수술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 2 '원장'은 '권 씨'의 아내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술비가 도착할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보다 물질을 중요시하는 비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3 여기서의 '암만'은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을 대신하여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부사 '암만'은 동음이의로 1.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 2.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아무리'와 같은 말로 쓰인다.

확인문제 4

139쪽 1 ④ 2 ② 3 ⑤

- 1 '나'는 강도가 강도질에 익숙하지 않으며,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찍이 간파했다.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 2 '나'의 집에 침입한 복면강도는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와 다리를 와들와들 떨며 칼을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리기까지 하는 어설플픈 모습을 보인다. '나'는 그런 강도의 모습을 애교스럽다고 생각하며 강도가 떨어뜨린 칼을 다시 쥐여 주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을 가진 '주객전도(主客顛倒)'와 의미가 통한다.

1 **오답풀이** ① '인과응보(因果應報)'는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을 뜻한다.

③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을 뜻한다.

④ '견강부회(牽強附會)'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을 뜻한다.

⑤ '부화뇌동(附和雷同)'은 주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쉽게 움직임을 뜻한다.

3 **완자쌍의 풀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을 파악하는 문제야.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이 묘사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술자가 인물을 판단하여 해설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에서는 '권 씨'가 강도에 대해서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라는 서술을 통해 강도가 강도질을 하기에는 착하고 심약한 성격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강도의 말과 행동으로 그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1 **오답풀이** ㉠, ㉡, ㉢, ㉣은 강도로 들어온 '권 씨'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강도가 순박하고 착한 성품을 지녔으며 강도짓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소심한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확인 문제 5

143쪽 1 ⑤ 2 '나'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을 알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3 ③

1 '아내'는 강도임이 들롱난 '권 씨'가 대문 밖으로 완전히 나간 뒤에 깨어났으며, '나'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아내'의 반복된 물음에도 강도에 대해서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내'는 강도가 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

1 **오답풀이** ① '권 씨'는 자신이 강도라는 것을 잊은 채 자신의 집인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에 '나'는 '권 씨'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문의 위치를 알려 준 것이다.

② 강도는 자신이 강도질을 하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문간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나'를 보면서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고 생각한다.

③ '나'가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벽 쪽으로 돌아누웠으므로 수술금을 대납해 준 '나'의 행동을 탐탁지 않아 함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권 씨' 부인이 무사히 수술을 받았음을 알리기 위해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라고 하면서 '나'가 '권 씨' 부인의 수술비를 내준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2 '권 씨'는 '나'의 말을 듣고 '나'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 으리라는 생각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분개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나'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3 '권 씨'는 한때 지식인이었던 자신이 몰락하다 못해 강도 행각까지 하게 되었음을 집주인인 '나'에게 들키고 만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존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다. 이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나마 세우기 위해서 한 말이 자신의 학력을 내세우는 "이래 배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라는 말이다.

확인 문제 6

143쪽 1 ② 2 ③ 3 ⑤

1 '나'는 '권 씨'가 손질해 둔 구두들을 보면서 그의 구두코가 반짝반짝 닦여 있는 한, 그의 자존심도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권 씨'의 구두는 그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물건임을 알 수 있다.

2 '나'는 '권 씨'가 집을 나간 이후 며칠 째 돌아오지 않자 '권 씨'의 행방을 알 만한 정보를 찾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그를 직접 찾아 나서지는 않았다.

1 **오답풀이** ① '나'는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 '권 씨'가 왔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② 문간방을 뒤져 보면서 비어 있는 한 켄레의 구두, 즉 '권 씨'가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임을 깨달은 '나'는 '이 순경'에게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렸다.

④ '나'는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알아챘으면서도 '권 씨'가 전혀 '나'를 뒤흔하게 대할 수 있게 하려고 '권 씨'의 정체를 모른 척했던 것이 적절했는지를 돌아보고, 졸렬했다고 생각한다.

⑤ '아내'가 병원에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맡려 보낸 후, '나'는 문간방으로 들어가 '권 씨'의 행방에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았다.

3 작가는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의 개발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산업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1 **오답풀이** ①, ② '나'와 '권 씨'는 이웃 간에 갈등을 벌이지만 화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둘의 빈부 격차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③, ④ 세대 차이를 드러내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으며,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은 병원 원장에 대한 것으로 소설의 일부에 해당한다.

01 ㉔ 02 ㉔ 03 ㉔ 04 ㉑ 05 ㉔ 06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의미하므로, '나'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구두를 문질러 닦음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다. 07 ㉔ 08 ㉑ 09 ㉔ 10 ㉑ 11 ㉑ 12 '권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행방불명된 '권 씨'를 상징한다. 13 ㉑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소설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서술자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한다.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서술자 역시 극중 인물인 '나'이다.

02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극중 인물 '나'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 즉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다. '초점이 되는 인물'이란 그 글에서 사건 전개 중심이 되는 인물을 말하며, 이 글에서는 '권 씨'를 칭한다. 이 작품은 '나'의 시선으로 '권 씨'의 삶을 그려 내고 있으므로 ㉔는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풀이 ㉑ 역전적 구성이 되려면, 과거 회상 등을 통해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가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㉒ 이 작품은 당대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제시된 부분에서 공간적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은 없다.

㉓ 의식의 흐름 기법은 감각, 기억, 연상 등을 인간의 정신에서 나오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뜻한다. 이 작품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을 찾을 수 없다.

㉔ 성격과 행위의 괴리가 나타나려면, 인물이 자신의 성격과 반대로 행동하는 장면이 나타나야 하나, 이 글의 인물들은 자신의 성격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고자 하는 '권 씨'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나'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04 **▶원자쌍의 풀이** '권 씨'가 빌리려는 '십만 원 가까이'가 어디에 쓰기 위한 돈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해. '권 씨'의 다음 말을 통해서 이 돈이 '권 씨' 아내의 수술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소설의 배경이 1970년대임을 생각해 보면 '십만 원'은 꽤 큰돈이었을 거야.

㉑은 '권 씨'가 '나'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꺼낸 말이다. 이로 인해 돈을 빌리려는 '권 씨'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어려운 '나'가 갈등을 겪는다.

05 '권 씨'는 처음에 도발적인 태도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과 달리, '나'가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자 본래의 수줍은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는 '권 씨'가 부탁을 거절당한 순간,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어 평소의 수줍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06 '권 씨'가 발을 들어 바짓가랑이 뒤에다 문지르는 것은 구두를 닦기 위한 것이다. '구두'가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㉔은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한 상황에서 '권 씨'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㉑ |
|---|--------------------------|
| '구두'가 '권 씨'의 자존심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구두를 문질러 닦는 행위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을 바르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7 [A]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가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한 내용으로 서술했던 것과 달리,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 '권 씨'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의 변화를 통해 '권 씨'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 시점의 종류

-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 주변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점
-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신처럼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각 등장인물 및 사건을 묘사, 해석,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점

08 '나'는 자신이 '권 씨'를 도와주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우회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이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라는 '나'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㉑ '권 씨'가 대문으로 나가면서 "이래 봐도 나 대학까 지나온 사람이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㉒ 강도인 '권 씨'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한 행동에서 알 수 있다.

㉔ '나'는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권 씨'가 전처럼 자신을 뒤흔어 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 행동한다.

㉕ '나'가 '권 씨'에게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를 강도로 대우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이다.

09 **▶원자쌍의 풀이** '권 씨'와 '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해 보는 문제야. 인물들을 단순히 개인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시대에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나'가 문간방을 살살이 살피는 이유는 행방불명된 '권 씨'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드러나 있다.

10 '권 씨'는 복면을 쓰고 어설피게 강도 행각을 벌이는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고도 자신을 배려해 주는 '나'의 태도에서 오히려 마지막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

|오답풀이 ① '권 씨'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음을 알고 분개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② '권 씨'가 병원에 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권 씨'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집을 나간 것이다.

⑤ '권 씨'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강도로 침입한 자신의 정체를 들켰기 때문이다.

11 '나'는 '권 씨'를 강도로 대우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권 씨'의 아내가 있는 병원에서 '권 씨'를 재회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권 씨'를 배려한 행동에 오히려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가고 '나'는 자신의 행동이 줄곧 옳았음을 반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권 씨'가 신고 나간 '한 켈레의 그 구두' 외에 남아 있는 '아홉 켈레의 구두' 역시 '권 씨'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게 수술비를 빌리러 왔다가 거절당한 그 날에도 '권 씨'가 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이다.

④ '나'가 '권 씨'를 배려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오히려 '권 씨'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꼴이 되었다.

⑤ '칠혹'은 '웁칠처럼 검고 광택이 있음. 또는 그런 빛깔'을 뜻한다. 색채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 '권 씨'의 앞날을 표현한 것이다.

12 이 글에서 구두는 '권 씨'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는 대상으로, '권 씨'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며, '권 씨'의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따라서 사라진 한 켈레의 구두는 '권 씨'가 신고 나간 구두로, 돌아오지 않는 '권 씨'를 상징하는 동시에 상처 받은 '권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권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임을 언급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행방불명된 '권 씨' 자신을 상징함을 언급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3 '나'는 '권 씨'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대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지 금방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아내와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권 씨'는 '나'가 도와 준 것을 모르므로, "그따위 이웃은 없다."라고 하며,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끝까지 '권 씨'를 강도로 대우함으로써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권 씨'가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 강도임을 망각한 '권 씨'의 실수를 지적한 것이다.

④ '나'는 '권 씨'의 구두가 손질되어 있는 정도를, '권 씨'의 자존심이 살아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권 씨'가 행방불명이 된 후 '나'가 문간방을 찾은 이유는 '권 씨' 행방의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이다.

(3) 결론

확인 문제 ①

157쪽 1 ⑤ 2 하인

1 '남자'가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그가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남자'는 빈털터리임이 앞부분 줄거리에 나타난다.

② '어마어마한 저택'은 잠시 빌린 것이다.

③ '여자'는 속물적 태도를 보이나, '남자'가 이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④ '남자'가 '여자'를 만난 이유는 맞선을 보기 위해서이며, '여자'가 부자인지는 알 수 없다.

2 '하인'은 '남자'의 저항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벡타이를 수거해 간 기계적이고 보조적인 인물이다.

확인 문제 ②

159쪽 1 ③ 2 ⑤

1 전개 ③에서 남자는 관객석으로 걸어가 관객에게 말을 걸고, 물건을 빌리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객석과 무대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들이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극의 주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2 전개 ⑤에서 '여자'는 '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덤'은 '여자의 어렸을 때 별명이다(①)'. '덤'의 사전적 의미는 제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얻어 주거나 받는 물건이라는 의미(③)로,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덤'으로 자신을 주었다(②)고 말하고 있다. '여자'는 비록 사기꾼이었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며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다고 하였다.(④)

확인 문제 ③

161쪽 1 ⑤ 2 ④

1 '남자'는 '여자'에게 '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뒤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물질적인 것은 잠시 빌린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오답풀이 ① '여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남자'와 '여자'는 '덤' 이야기를 계기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 ③ 사기를 친 것은 '여자의 아버지'이다.
- ④ '덤'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므로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지 않는다.

2 '남자'는 물건을 빼앗기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빼앗기는 물건들을 '자질구레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 소유물을 빼앗기는 것에 초연해지게 되었다. 이는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확인 문제 4

163쪽 1 ① 2 ②

1 '하인'은 '남자'의 모자를 가져가려다가 멈춰 서서 '여자'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관심거리일 뿐, '하인'이 '여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석할 만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원자뱀의 풀이** '남자'는 '여자'의 얼굴에 사진을 하나씩 대어 보고 있고, '여자'는 목소리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사진 놀이'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자'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통해, '남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작품의 주제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 '사진 놀이'에서 '여자'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 '여자의 어머니'가 되고, 시간이 더 지나 '여자의 할머니'가 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젊음도,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사라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확인 문제 5

165쪽 1 ④ 2 ④ 3 큰 구두 한 짝 4 ③

1 '남자'는 두동실 떠 있는 달님, 은빛의 구름, 하늬바람과 같은 자연물도 모두 잠시 빌린 것이라고 하며 자연물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됨을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은 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 자신과 '여자'마저도 잠시 빌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⑤ 당신을 빌린 동안에는 오직 사랑만을 하겠다고 말하며, 결혼은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받고,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이해 못하실 걸요, 어머니.”이라고 말하며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자의 어머니'에게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3 '하인'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저택에서 나가지 않는 '남자'를 내쫓기 위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신는다. 보통의 구두보다 훨씬 크게 강조된 이 구두는 '하인'이 가진 힘을 강조한다. '하인'이 구두를 신고 '남자'를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작별을 고해 극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극은 점차 절정을 향해 간다.

4 '남자'는 자신에게 온 경고문을 '여자'에게 솔직하게 보여 주고, 이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빌린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 이는 '남자'가 가식과 허세를 벗고, 자신의 상황을 모두 밝히며 진솔한 모습으로 '여자'에게 다가가려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확인 문제 6

167쪽 1 ③ 2 ④ 3 ④

1 '하인'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서서히 다가올 때, '여자'를 설득하려는 '남자'와 '남자'를 떠나려는 '여자'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동시에 결혼을 승낙받지 못해 저택을 떠나지 않는 '남자'와 '남자'를 내쫓기 위해 '무서운 구두발'을 이끌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하인'과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2 이 글에서 '남자'는 '여자'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이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여자'에게 솔직하게 밝히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자신의 깨달음만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여자'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라고 하며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③, ⑤ '여자'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남자'의 말에 공감하고, 그에게 설득되어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쑥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라고 말하며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있다.

3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남자'와 '여자', '하인'뿐이므로, 이 인물을 제외한 ㉠의 '증인'은 관객이다. 이 작품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엄격했던 기존의 극과 달리 관객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참고 자료 ++ 현대 극의 특징

- 주로 한정된 무대에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표현함
- 사건이나 행동을 현재형으로 표현함
- 실험적인 무대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 의식을 전달함

-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소유의 본질에 대한 '남자'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06 ③ 07 ① 08 ⑤ 09 ② 10 넥타이 11 ① 12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담'으로 빌린 것이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 13 ⑤ 14 ③ 15 ① 16 ④ 17 경고문 18 ② 19 ③

01 (마)에서는 '넥타이를 빌린 남성 관객에게' 대사를 하라는 지시문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은 연극이 진행되는 무대와 이를 보는 관객들의 공간인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맞선으로 만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인 결혼담을 그리고 있다.

②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남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따라서 이야기책 속의 이야기와 이극의 내용이 유사하다.

③ 결혼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빌려 부자인 척하는 '남자', '남자'가 빌린 저택을 보고 황홀함을 느끼는 '여자', "빈털터리 같은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여자의 어머니' 등을 통해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④ 이 글은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전제로 한 희곡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극의 주제를 드러낸다.

02 '남자'는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빈털터리인 자신의 본모습을 '여자'에게 밝히고 있다. 소유에 대한 생각과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여자'를 설득하여 '여자'에게서 결혼 승낙을 받아 내고 있지, 물질적인 조건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주인에게 다시 물건들을 빌린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앞부분 줄거리에는 저택, 모자와 넥타이, 의복, 하인 등을 빌린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이 등장한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하였으므로 결혼하기 위해 물건을 빌려 부자인 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마)에서 '남자'는 진심을 담아 '여자'를 설득하고, (바)에서 결국 '여자'는 청혼을 받아들인다.

③ (다)에서 '남자'는 자신이 깨달은 소유의 본질에 대해 '여자'에게 설명한다.

④ (마)에서 '남자'는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다.

03 '하인'은 (다)에서 '남자'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을 털어 간다. 이처럼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시간이 되면 '남자'로부터 물건을 빼앗아가는 기계적인 인물이다.

04 **완자샘의 풀이** 이 글에서는 '남자'의 말을 통해 소유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 (다)~(마)에 제시된 '남자'의 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지를 하나씩 읽어보고, '남자'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돼.

'남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빌린 동안에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글에서는 어떤 대상을 특별히 값지게 여기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05 '여자'는 처음에는 부자와 결혼하려 했다. 그러나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 역시 점차 소유의 본질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으며, 빈털터리지만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이 글의 주제인 '소유의 본질'과 관련하여 '여자'가 '남자'의 말에 공감했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에 대한 ~에 공감했기 때문이다.'의 형태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6 (다)에서 '남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을 빼앗기면서도 저항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질구레한 것들이 떠나갔을 뿐이라며 행복해한다. 이러한 '남자'의 모습은 수천 개의 이파리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돌려주어도 아무 소리 없는 '나무'의 모습과 유사하다.

오답풀이 ① '남자'는 [A]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좌절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고양이'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김에도 태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무지함과는 관련이 없다.

④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⑤ '고양이'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생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소유의 본질을 보여 준다. 즉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의 한계가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07 '하인'은 ㉠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신고 '남자'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저택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남자'와 그를 쫓아내고자 하는 '하인'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장면으로, ㉠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답풀이 ② 엄청나게 큰 구두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소재이므로 사실감을 더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③ 하인이 신은 '구두'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건을 회수하는 '하인'의 모습, 즉 시간의 엄정함을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④ '여자'는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 설득되어 결혼을 결심한다. 즉 '구두'는 이들이 결혼에 이르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⑤ '구두'는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08 이 글의 갈래는 희곡이다. 희곡은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무대에서 연극으로 상연된다. ⑤의 설명과 같이 형식적 제약을 받지 않는 문학 갈래의 예로는 수필을 들 수 있다.

09 '남자'는 '여자'의 '덤' 이야기를 계기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착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여자'를 이용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요답 풀이 ① 처음에 물건을 빌려 부자 행세를 하던 '남자'는 '여자'에게 '덤' 이야기를 듣고 베타이를 관객에게 되돌려 준다. 이처럼 '남자'는 사건이 전개되면서 점차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③ '여자'와 '남자'는 맞선을 보고 있으며,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어릴 적 별명인 '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열고 있다.

④ (라)에서 '남자'는 "저어,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상황을 모면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물건이 빌린 것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⑤ (나)에서 '여자의 어머니'가 사기꾼이었던 '여자의 아버지'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다)의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 에겐 주지 않겠다고요."라는 여자의 말에서 '여자의 어머니'가 딸을 사기꾼에게 시집보내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다.

10 '남자'는 처음에는 '여자'를 현혹하기 위해 관객에게 베타이를 빌려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에게 '덤' 이야기를 듣고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후, 관객에게 이를 돌려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1 **완자쟁의 풀이** 기호가 제시된 문제를 풀 때는 제시된 기호의 내용을 유심히 읽어 봐야 해. 이 문제에서는 [A]와 같은 장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므로 [A]에서 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

[A]에서 '남자'는 관객에게 베타이를 돌려주고 관객석을 거닐며 대사를 하고 있다. 즉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이 극 중에 참여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객의 참여를 통해 극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관객이 참여한다고 해서 관객이 배우가 되어 무대에서 직접 공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2 '덤'은 '여자'의 별명으로, 제 값어치 외에 저저로 조금 더 얹어 주는 일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한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빌린 것들을 되돌려 주고 있다. 이러한 단서를 통해 소유의 본질에 대한 이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모두 '덤'으로 빌린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덤'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3 **완자쟁의 풀이**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해당 부분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 대부분의 단서가 해당 부분보다는 앞뒤 문맥에 나와 있다.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빌린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마)에서도 '하인'이 빌린 것을 받기 위해 '남자'에게 다가오는데, 이때의 지시문을 보면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이유는 사랑을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자'에게 자신의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답 풀이 ①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어머니'의 성향으로 미루어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여자'의 별명이 '덤'이 된 이유는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사랑과 함께 '여자'를 '덤'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③ '여자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은 모두 빌린 것으로, '남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자'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여자'는 '남자'에게 '덤'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남자'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

14 '여자'는 '남자'가 말한 ㉠의 대사를 듣지 못하고 뭘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여자'에게 들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대 위에 함께 올라와 있는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으나 관객에게는 들리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인 '방백'이다.

요답 풀이 ① '대화'에 대한 설명이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독백'에 대한 설명이다. 무대에는 상대역인 '여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주술적인 성격의 대사가 되려면 '남자'가 기원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남자'는 자신이 마음을 말하고 있을 뿐 무언가를 기원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남자'는 상대역인 '여자'에게 대사를 속삭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자료 ++ 희곡 대사의 유형

| | |
|----|---|
| 대화 |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 |
| 독백 | 등장인물이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대사 |
| 방백 | 등장인물이 말을 하고 있지만 무대 위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 |

15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낸다.'는 지시문이 있으므로, 사진은 '여자'의 핸드백에서 꺼내야 한다. 그리고 사진은 '여자', '여자의 어머니', '여자의 할머니' 것이어야 한다.

16 '남자'는 자신이 빌린 물건이 아닌 '사진'을 '하인'이 들여다보자 '하인'을 직접 밀어낸다. 따라서 '하인'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남자'는 놀이를 특별히 빠르게 전개하고 있지도 한다.

|오답풀이 ① '여자'는 사진이 바뀌면 사진 속 인물의 나이에 맞춰 목소리를 바꾸어 내었다.

② '여자'는 사진에 대해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라고 말하고 있다.

③ '사진 놀이'의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 젊음도, 아름다움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고 '사진'과 같은 찰나의 흔적을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⑤ '남자'는 자신이 깨달은 소유의 본질을 '사진 놀이'를 통해 '여자'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남자의 말에서 드러난다.

17 (가)에서 '남자'는 저택의 주인으로부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으니 저택에서 나가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받는다. 이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폭로하고, 극의 위기를 불러 온다.

18 <보기>의 첫 구절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에서 드러나듯이 <보기>는 사람의 소유물이 모두 남에게서 빌린 것인데도,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유물인 양 행동하면서 반성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빌린 것임을 말하고 있는 (다)와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본다는 점에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이곡, 「차마설」

| | |
|----|--|
| 갈래 | 고전 수필, 설 |
| 성격 | 교훈적, 체험적, 설득적 |
| 주제 | 말을 빌려 타는 일에서 느낀 인간의 도리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체험을 보편화하여 인간의 도리를 깨우쳐 줌 • 체험적 사실을 논거로 하여 사실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의미를 부여함 |

19 '남자'가 ㉠에서처럼 미소를 짓는 이유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남자'는 자신이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도 당당하게 '여자'에게 청혼한다.

|오답풀이 ① '남자'는 '여자'에게 쪽지를 보여 줌으로써 빌린 집에서 쫓겨나게 된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② '남자'는 '여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밝힌다.

④ '여자'는 청혼하는 '남자'의 말에 대답을 망설이고 있다. 이는 '남자'를 사랑하게 된 마음과, 부자와 결혼하겠다는 '어머니'와의 맹세를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남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해 '여자'가 크게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이는 '남자'와 '여자'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4) 반 통의 물

확인문제 ①

183쪽 1 ⑤ 2 ③

1 글쓴이가 당근을 속아 주는 행위를 통해 깨달은 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한 존재와 다른 존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거리가 있어야만 당근 사이에서는 '아우성'을, 사람 사이에서는 '폭력과 환멸'을 증재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수필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 글쓴이의 밭이 채소가 반, 잡초가 반일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은, 작은 잡초조차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는 글쓴이가 잡초를 다 뽑아 버리는 것을 망설였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의 밭이 잡초로 무성한 이유는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잡초와 채소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④ 글쓴이의 밭은 채소가 반, 잡초가 반일 정도로 잡초가 많다. 하지만 이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글쓴이가 땅의 원래 주인은 풀이라고 생각하여 잡초를 뽑는 것을 망설였기 때문이다.

⑤ 글쓴이가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놔둔 것은 잡초를 다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이지, 채소가 다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다.

확인문제 ②

185쪽 1 ③ 2 ④ 3 수필

1 ㉠은 푸성귀, 즉 식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부지런히 밭을 오가며 식물을 돌보는 농부의 정성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부는 농작물을 부지런히 또 정성스럽게 돌봐야 함을 알 수 있다.

2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반 통 이상의 물을 길에 흘리며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깨닫는다.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애를 쓰며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빛난다고 한 것이다.

3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드러내는 갈래는 교술 갈래이며, 이 글은 교술 갈래 중 수필에 속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190~193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② 06 ① 07 ⑤
 08 ② 09 ⑤ 10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음
 11 ① 12 ⑤

01 이 글은 교술 갈래에 속한다. 교술은 글쓴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하는 갈래로, 이는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우는 서정 갈래나 서사 갈래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 요답 풀이** ① 교술 갈래는 형식과 표현에서 제약이 거의 없다.
 ② 교술 갈래는 글쓴이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③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 수필은 글쓴이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표현한 글이므로, 모두 교술 갈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설(說), 기(記) 등의 한문 문학도 교술 문학으로서 존재해 왔다.

02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이 글에서 특별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원을 밝혀 풀이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 요답 풀이** ① 글쓴이는 당근을 숙아 준 경험에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잡초를 뽑지 않았던 경험에서 공존이 땅의 질서라는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글쓴이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농작물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당근을 숙아 준 이야기가, (나)에서는 잡초를 뽑지 않았던 이야기가 제시되며 농사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체험과 그에 대한 생각들을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다.

03 **완자쌍의 풀이** '나'가 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야. 제시된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하나씩 따져 가며 확인해 보자. 지문의 내용이 선지에 그대로 제시된 것은 아니니까, 문맥을 확인하여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해.

(나)에서 '나'는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라고 하였다. 또한 침입자가 삼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원주민 풀들인 잡초를 뽑는 것이 명목이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④와 같이 '나'가 잡초를 전혀 뽑지 않은 것은 아니다.

- 요답 풀이** ① 글쓴이인 '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잡초와 채소는 인간에 의한 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작년에 너무 알개 씨를 뿌리는 바람에 새들이 씨를 다 먹어서 심은 농작물의 싹이 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그 경험 때문에 '나'는 씨를 뿌리는 남편에게 넉넉히 넣으라고 재차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③ 글쓴이는 '밭은 숲보다 생명이 덜 가깝다.'라고 한다. 이는 밭에서는 채소를 선택하여 잡초를 죽이지만, 숲에서는 모든 풀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나'는 식물에게도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지면 폭력과 환멸이 생겨난다고 말하며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4 이 글의 글쓴이는 김을 맬 때 뽑아버려야 하는 잡초도 채소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부지런히 김을 맬 때 뽑지 않는 행위가 농부의 악덕은 아니라고 옹호하고 있으므로, 농사를 위해 부지런히 김을 맬 때 삶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요답 풀이** ① 글쓴이는 정성스레 당근을 키우고 있고 또 채소를 잘 키우기 위해 풀을 뽑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아가 잡초의 생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생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보고 있으며, 가능한 선에서 자기 밭의 잡초를 뽑지 않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보다는 공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잡초는 인간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인간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대상도 배려하는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글쓴이는 당근을 키우면서 식물 사이에도 사람 사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으므로, 적절한 거리를 아는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05 글쓴이는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속담을 떠올리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함부로 생명을 지니고 있는 풀을 미운 풀, 고운 풀이라고 구분할 수 없으므로 잡초를 지나치게 뽑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채소가 자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잡초를 뽑기 때문에 글쓴이의 밭에는 채소가 반 잡초가 반이라고 하였다.

06 **완자쟁의 풀이** 이 글의 (나)와 한문 수필 작품인 「슬견설」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는 문제야. (나)는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임을, <보기>는 '개'와 '이'의 이로움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편견임을 말하고 있어. 어때? 주제적 측면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지?

(나)의 글쓴이는 '채소'뿐만 아니라 '잡초'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중시한다. 반면에 <보기>의 '손님'은 '개'는 가엾게 여기지만 '이'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1오답풀이 ② (나)의 '침입자'는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원주민 풀들을 뽑는 사람이다. 이는 <보기>에서 '이'를 하찮게 여기고 태워 죽이는 사람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글쓴이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땅의 원주민들을 쫓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보기>의 글쓴이는 '이'이건 '개'이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똑같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통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채소'와 '잡초'를 구분할 기준이 없다고 하였고, <보기>에서는 '개'와 '이'는 모두 똑같은 생명이라고 하였다.

⑤ (나)는 '채소'와 '잡초'를 나누는 기준에, <보기>는 '개'와 '이'를 나누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참고자료 ++ 이규보, 「슬견설」 | |
|--------------------|--|
| 갈래 | 한문 수필, 설(說) |
| 성격 | 교훈적, 풍자적, 설득적, 우의적 |
| 제재 | 개와 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
| 주제 |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
| 특징 | • 대조적인 예를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함 • 대화의 형식을 취해서 극적으로 표현함 |

07 ㉠의 '명목'은 '구실이나 이유'라는 의미이다. (나)에서는 원주민 풀들을 뽑아낼 구실이나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에 제시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 또는 그 시선'은 '주목'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08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일상적 문체로 전달하고 있는 수필이다. 이 글에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속담은 나타나지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이를 통해 글의 신뢰성을 높여 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오답풀이 ① 채소들이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린다고 의인화하거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 등의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절뚝절뚝', '휘청휘청', '문득문득'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④ 글쓴이의 집 가까운 곳에서 텃밭을 일구는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채소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⑤ 이 글은 일상에서 쓰는 단어와 문체를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다.

09 <보기>의 과정에서 글쓴이는 밭을 일구는 경험을 하였고, 그때 얻었던 경험과 깨달음을 되새겨 보았으며, 이러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였다. 즉 수필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로, 허구적 사실을 더해 꾸며 쓰지 않는다.

10 이 글의 글쓴이는 농사를 지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에서 각각의 깨달음을 얻고 있다.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본 (다)의 경험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고, 채소를 키우는 자신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을 깨달음'의 문장 형식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1 이 글의 '할아버지'는 물이 필요한 채소들에게, <보기>의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은 외손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 참고자료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텃마루」 | |
|-----------------------------|--------------------------------|
| 갈래 | 현대 시, 산문시, 서정시 |
| 성격 | 전통적, 회상적, 서사적 |
| 제재 | 텃마루 |
| 주제 | 외할머니네 텃마루에 얽힌 어린날의 추억과 그리움 |
| 특징 |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인정과 따뜻함을 표현함 |

12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물통을 나르느라 반쯤 물을 흘리면서 만든 젖은 길을 보고, 글쓴이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는 그 길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할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그 길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이다.

1오답풀이 ① '운치'는 고상하고 우아한 멋을 뜻한다. 글쓴이는 불편한 몸으로 물을 길어다 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몸부림 같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평화 같은 것도 느낀다고 했지만, 이를 운치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다.

②, ④ 할아버지가 흘린 물은 길을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한 양도 아니고, 금방 말라버리므로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할아버지가 물을 반 통 이상이나 흘리면서도 밭에 물을 주려 가는 모습 그 자체가 감동적인 것이다. 불편한 몸이라서 물을 흘리는 것이지 잡초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다.


-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① 07 할 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자유롭지 못하는데도,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나른다. 글쓴이는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 길이 아름답고 빛난다고 서술하였다. 08 ③ 09 ④ 10 ④ 11 ③ 12 ① 13 ② 14 ③ 15 ③ 16 ④ 17 ④ 18 ③ 19 ⑤ 20 ②

01 (가)와 (나)는 언어를 통해 가치 있는 내용을 다루고, 미적 가치를 추구(⑤)하는 문학이다. (가)는 서정 갈래에 해당하는 현대 시이고, (나)는 교술 갈래에 해당하는 현대 수필이다. 서정 갈래는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며(①), 화자를 내세워 추상적인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한다(④). 한편 교술 갈래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것(②)이며,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서정 갈래나 서사 갈래와 구분된다. 따라서 (나)가 (가)와 달리 작가를 대리하는 화자를 내세운다고 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참고자료 ++ 문학의 개념

- 문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한 종류로,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함
- 문학은 심미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그려 냄
-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면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다룸

02 (나)에서 '젖은 길'은 채소를 키우기 위한 할아버지의 헌신이 담긴 노력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가)에서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눈의 헌신이 담긴 노력이 피워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나)의 '젖은 길'은 과정, (가)의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결과이므로, 둘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03  <보기>에는 다양한 시의 표현 기법이 나타나 있어, 키워드만 뽑아서 살펴보자. 역설적인 표현, 시적 대상의 변화, 가정법의 문장, 음성 상징어. 이와 같은 각각의 표현 기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가)에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면 돼.


(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난다(ㄱ). 이는 첫사랑이 남긴 상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 시의 주제와 연관된다. 또 눈이 눈꽃이 되었다가, 마침내 봄꽃으로 피어나는 시적 대상의 변화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ㄴ). 마지막으로 '짜그락 짜그락',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ㄷ).

04 (가)의 4연에서 겨울이 지나간 봄에,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고 하였다. 이는 눈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어난 '봄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내와 헌신 뒤에 오는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따라서 4연에서 꽃이 아름다움을 잃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자료 ++ 시상 전개

시상 전개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관념을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 시간의 흐름 | '과거-현재-미래', '봄-여름-가을-겨울'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
| 공간의 이동 | '먼 곳 → 가까운 곳', '위 → 아래' 등 장소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
| 수미 상관 |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는 방식 |
| 기승전결 | 기(시상의 제기) → 승(시상의 심화) → 전(시상의 전환) → 결(시상의 집약)로 이루어진 방식. 한시(漢詩)의 전통적인 시상 전개 방식임 |

05  선지의 행위는 모두 '눈'이 한 행동이야. 그렇다면 '사랑을 이루기 위한'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 행위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

(가)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지를 두드리고, 춤추고, 미끄러지면서도 도전하며 햇شم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주는 것이다. 이와 달리,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가 버리는 것은 첫사랑이 지닌 위태로움과 순간적인 성격을 형상화한 것이다.

06 (나)의 글쓴이는 발을 일구는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글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나)는 작가의 경험과 정서를 진솔하게 담고 있는 글임을 알 수 있다.

07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오가는 젖은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부터인가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몇 번씩이나 길을 오가며 채소에게 물을 준다. 이는 할아버지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며, 글쓴이는 이에 감동을 받아 그 길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처지를 올바르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나)의 주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연결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8 '어떤 안간힘'은 할아버지가 반 통의 물을 주기 위해 힘겹게 받을 오가는 걸음과, 글쓴이가 채소들을 키우는 일의 공통점으로, 살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09 이 글에서는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 씨'가 돈을 빌리기 위해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만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주로 '권 씨'의 행동이 제시되는데, 수줍게 웃거나 구두를 문지르는 행동, 돈을 빌릴 때의 엄숙한 표정 등으로 '권 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이 글의 등장인물이자 서술자인 '나'는 '권 씨'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터벌터벌, 휘적휘적 등의 의태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⑤ 주로 '나'와 '권 씨'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10 '권 씨'가 과거에 '나'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제시된 글의 첫 부분에서 '권 씨'가 '나'의 조언을 받아들여 산모를 병원으로 옮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권 씨'가 먼지가 이는 언덕길을 올라왔는데도 그의 구두는 반짝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권 씨'는 바짓가랑이 뒤쪽에다가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른다. 이는 구두를 반짝거리게 빛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원 산부인과의 원장은 '권 씨'가 수술비를 낼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권 씨'의 아내가 입원할 때 알아차렸다. '권 씨'가 수술비를 가져와야만 원장이 수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 씨'가 '나'에게 수술비를 빌리러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권 씨'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가 위험한 상황임을 '나'에게 전달하고 있다.

⑤ '나'는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에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11 이 글에는 수술비를 빌려주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와 아내를 위해 급히 수술비를 빌려야 하는 '권 씨'의 외적 갈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 참고 자료 ++ 갈등의 유형 | |
|-----------------|---|
| 외적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과 인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과 사회: 인물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제도 등과 입장을 달리하며 빚게 되는 갈등 인물과 운명: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과 대립함으로써 표출되는 갈등 인물과 자연: 인물이 그에게 제약을 주는 자연 현상에 의해 겪게 되는 갈등 |
| 내적 갈등 |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대립되는 여러 욕구나 감정이 생겨 일어나는 갈등 |

12 '나'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한 '권 씨'가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상처 입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권 씨'는 끝까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오답풀이 ② '권 씨'가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임은 맞지만, 완전한 실업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권 씨는 막별이나 간간이 출판사 번역 일을 하고 있다.

③ '나'는 '권 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긴 하지만, '나' 역시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와 '권 씨'의 빈부 격차가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④ '나'와 '권 씨'가 경쟁하고 있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

⑤ '권 씨'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며, 권 씨의 말은 회한(늪우치고 한탄함)이라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이다.

13 '나'는 '권 씨'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 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애초에 빌려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나'는 '권 씨'의 벌이로는 끼니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③ (나)에서 '나'는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라고 하면서, '권 씨'의 보증을 거절하며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나'의 제안을 거절한다.

④ (나)에서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 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며, 나쁜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말만 한다.

⑤ (가)에서 '권 씨'는 '나'에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라고 하였다.

14 (가)는 극 갈래 중 희극, (나)는 서사 갈래 중 현대 소설에 해당한다. 극 갈래는 서사 갈래와 달리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낸다. 따라서 서술자의 묘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오답풀이 ① (가)는 희극이고, (나)는 현대 소설이다. 이는 모두 문학의 한 갈래이다.

② (나)는 언어만으로 내용을 구현하므로 무대에서 장면을 구현해야 하는 (가)에 비해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④ (가)는 무대에서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나)는 서술자의 묘사나 직접 전달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⑤ (가)는 이야기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지만, (나)는 시제에 제약받지 않는다.

15 (가)에서 '하인'의 구두발은 '남자'에게 서서히 다가오며 그를 위협하고, 이에 따라 관객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그러나 '하인'은 기계적으로 물건을 회수하는 인물로, 물건을 되돌려받는 것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두가 '하인'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가)에서 '하인'이 구두를 신고 '무서운 구두발'로 점점 '남자'에게 다가가고, '남자'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친다. 이로 보아 구두가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소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나)에서 '나'는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며, 구두가 잘 닦여 있는 한 '권 씨'의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올려져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권 씨'의 구두는 그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16 (가)의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걸며 관객을 극 중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기법이 적용된 장면으로, 관객의 극 중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극의 상황과 주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17 (가)에서 '덤'은 '여자'의 별명으로, 소유에 대한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여자'는 부자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모든 소유물이 다 빌린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를 외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신도 버림받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8 '남자'를 외면하려던 '여자'는 '남자'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남자'에게 다급하게 되돌아와 포옹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여자'가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 설득당했고,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19 (나)의 작가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가난한 이의 삶과 자존심을 보여 주는 '권 씨'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의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20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에서 알 수 있듯 '권 씨'는 '나'의 돈을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권 씨'가 돈을 훔쳐간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가 아내에게 강도가 '권 씨'라고 밝히지 않는 것은, '권 씨'가 돌아왔을 때 아내와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③ '나'는 지난밤, '권 씨'가 무안해할 것을 염려하여 그가 강도였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르는 척했던 것이었다.

④ '나'는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일깨워 준 것을 떠올리며 그것이 영 마음에 걸린다고 하고 있다.

⑤ '나'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권 씨'가 느꼈을 감정을 추측하면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남자'는 소유한 모든 것이 빌린 것이라고 하며, '여자'를 빌리는 동안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하였다. '여자'는 이 말에 공감하고, '남자'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청혼을 받아들였다. 06 ⑤ 07 ⑤ 08 ④ 09 '잡초'와 유사한 의미의 시어는 배추벌레이다. '잡초'와 '배추벌레'는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지만, 글쓴이는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0 ③

01 (나)에서 '남자'가 '두둥실 떠 있는 달님'과 '은빛의 구름'을 언급한 까닭은 세상 만물이 모두 빌린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인간들이 잠시 빌린 대상이자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③에서 말한 것처럼 지향해야 할 가치, 곧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은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을 표현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역경을 딛고 피워 낸 눈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통을 인내한 뒤에 얻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남자'는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소유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의 조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작품의 주제와 연관된다. 따라서 빌렸다가 되돌려 준 '넥타이'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대상은 아니다.

⑤ (나)에서 '남자'를 외면한 채 걸어 나가려던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고 다시 되돌아와서 포옹하는 것은, '남자'의 진실한 태도로 인해 '여자'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02 (가)의 [A]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여러 번 도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 (나)의 [B]는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진심을 담아 구애하는 '남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과 인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03 (가)의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라는 시구는 첫사랑이 지닌 위태로움과 순간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즉 힘들게 첫사랑을 이루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04 ㉠에서 '하인'은 구두를 신고 있는데 이 구두발로 인해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극적 긴장감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쪽지 내용을 직접 보여 주지는 않았지만, '여자'의 대사를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③ ㉡에서 '여자'는 독백적으로 대사를 하며, 당황스러운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④ ㉔에서 '남자'는 관객을 극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기법이다. 어떤 관객이 등장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으므로, 극을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효과적이다.
- ⑤ ㉔에서 '여자'는 '남자'를 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5 '남자'를 외면하려던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듣고 결국은 되돌아와서 그를 포용한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전의 '남자'의 말, 즉 소유는 본질적으로 빌리는 것이며, 자신은 '여자'를 세상에서 빌리는 동안 소중하게 대한 후 공손하게 되돌려 줄 것이라는 말에 설득되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남자'가 소유에 대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남자'의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해서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6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자신의 눈에 비친 인물인 '권 씨'가 강도짓을 하는 모습, 집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 등을 묘사하며 그의 행동을 해석하고 있다.

07 애써 지켜왔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권 씨'는 아홉 켄레의 구두 중 한 켄레를 신고 사라진다. 이에 '나'는 '권 씨'가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권 씨'의 자존심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밝고 즐거운 느낌의 배경 음악을 삽입하고 햇빛이 비추는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강도의 표정과 행동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신경 써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는 강도가 '권 씨'라는 것을 짐작하고 여유롭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③ '나'는 '권 씨'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므로, '권 씨'가 사는 문간방 쪽을 자주 쳐다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는 '권 씨'가 사는 문간방으로 들어가서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은 몇 점 도구들이 전부'라고 묘사하고, 그 외에는 아홉 켄레나 되는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세간 몇 점과 아홉 켄레의 구두를 소품으로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

08 **완자샘의 풀이** <보기>에 제시된 글을 바탕으로 이 글의 등장인물인 '권 씨'에 대해 이해해 보는 문제야. <보기>는 '권 씨'가 산업화 시대의 소외된 계층임을 말하면서, '권 씨'의 강도짓은 그의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 때문임을 말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권 씨'의 행동을 이해해 보자.

㉔의 뒷부분을 보면 '권 씨'는 열 켄레의 구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일곱 켄레의 구두를 손질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갈아 신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먼지를 덮어쓴 구두는 그저 '권 씨'가 손질하지 않은 구두일 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권 씨'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09 이 글의 '잡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글쓴이는 생명이라 생각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다. <보기>의 '배추벌레'도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한 대상이지만, 글쓴이는 '배추벌레'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배추벌레'가 배추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할까 배추를 꼭 동여매지 못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렇듯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대상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들과 공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유사한 의미의 시어로 '배추벌레'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사람들이 보통 가치 없게 여기는 대상이지만, 글쓴이는 소중하게 여긴다는 공통점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유사한 의미의 시어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두 대상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참고자료 ++ 나희덕, 『배추의 마음』

| | |
|----|--|
| 갈래 |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자연 친화적, 서정적, 비유적 |
| 제재 | 배추 |
| 주제 |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깨달은 생명의 소중함 |
| 특징 | •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의 교감을 표현함 • 자연과 합일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

10 글쓴이는 원래 땅의 주인이었던 풀을 뽑아내고 다른 생명을 키우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라는 속담은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원주민 풀'이 ㉔을 비판하는 속담으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달갈로 바위 치기'라는 속담은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라는 속담은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격'이라는 속담은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우연히 쥐를 잡게 되었다는 뜻으로, 우연히 공을 세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하는 꼴'이라는 속담은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4 바른 말, 바른 글

(1) 음운의 변동

확인 문제

221쪽 1 ③ 2 ⑤ 3 ④ 4 ② 5 ② 6 ④ 7 ①

1 음운의 정의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음운이 소리와 관련된 용어임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형태소'의 개념이다.

② '어절'의 개념이다.

④ '단어'의 개념이다.

⑤ '음성'의 개념이다.

2 대응은 '대신하여 다른 것을 씀'이라는 의미로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음운 변동 현상에는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있다.

② 음운 변동 현상에는 두 음운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첨가'가 있다.

③ 음운 변동 현상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가 있다.

④ 음운 변동 현상에는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이 있다.

3 <보기>의 (가), (나)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앞마당'은 받침 'ㅍ'의 대표음인 'ㅂ'이 비음 'ㅁ'을 만나 'ㅁ'으로 교체되면서 [암마당]으로 발음되므로 (가)에 해당한다. '침략'에서 'ㄹ'은 비음 'ㄴ' 뒤에 연결되어 비음이 아닌 'ㄹ'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어 [침:낙]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나)에 해당하는 예이다.

4 <보기>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다. 제시된 단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미닫이' 뿐이다. 우선 '닫'의 'ㄷ'은 모음 'ㅣ'를 만난다. 또한 'ㄷ'은 앞말 '미닫-'의 끝소리이다. 마지막으로 '이'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닫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미다지]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끝일'은 조건 1, 2는 충족하지만, 뒷말 '일'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올바른 발음은 [끈닐]이다.

③ '디디다'는 용언 어간 '디다-'와 종결 어미 '-다'의 결합이기 때문에 조건 1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받치다'는 'ㄷ' 뒤에 '치'가 오기 때문에 조건 1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홀이불'은 조건 1, 2는 충족하지만, 뒷말 '이불'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올바른 발음은 [훈이불]이다.

참고 자료 ++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형태소 중에서도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이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가 있다. '조사, 어미, 접사'가 형식 형태소에 속한다는 걸 알아두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구별하기가 더 쉽다.

5 <보기>의 (가), (나), (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조건 (가)에 해당하는 것은 받침 'ㄱ' 뒤에 'ㄱ'이 연결되는 '학교', 받침 'ㄷ' 뒤에 'ㄷ'이 연결되는 '뺨대지', 받침 'ㅍ(ㅂ)' 뒤에 'ㄱ'이 연결되는 '뿔개', 받침 'ㅅ(ㅈ)' 뒤에 'ㄱ'이 연결되는 '웃고름'이다. 조건 (나)에 해당하는 것은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더듬-'에 'ㄷ'이 연결된 '더듬지',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삼삼-'에 'ㄷ'이 연결된 '삼삼다', 'ㄴ'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껴안-'에 'ㄷ'이 연결된 '껴안다'이다. 조건 (다)에 해당하는 것은 어간 '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결합된 '할'의 뒤에 'ㅂ'이 연결된 '할 바를', 어간 '가-'에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결합된 '갈'의 뒤에 'ㄱ'이 연결된 '갈 곳을', 어간 '만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결합된 '만날'의 뒤에 'ㅅ'이 연결된 '만날 사람'이다. 따라서 (가)~(다)에 해당하는 예로 묶인 것은 ②이다.

6 **완자쟁이의 풀이** 표나 도식이 제시된 문제를 풀 때는 표와 도식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해. 이 문제의 <보기>에 제시된 도식을 볼까?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이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잖아. 그렇다면 이 도식은 '거센소리되기를 나타내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거센소리되기와 그 현상이 나타난 단어를 알맞게 연결한 단어를 찾으면 될 거야. <보기>는 거센소리되기를 보여 주고 있다. '파랗다'는 '랑'의 끝소리 'ㅎ'과 '다'의 'ㄷ'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어 [파라타]로 소리 나므로,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7 '보였다'는 '보다'의 어간 '보-'에 피동 접미사 '-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가 붙은 말이다. 이때 '-었-'은 접미사 '-이-'와 선어말 어미 '-었-'이 축약된 말로,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되는 현상인 모음 탈락의 예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써서'는 '쓰- + -어서'에서 'ㄷ'가 탈락한 것이다.

③ '타라'는 '타- + -아라'에서 'ㄷ'가 탈락한 것이다.

④ '짚다'는 '자- + -았- + -다'에서 'ㅈ'가 탈락한 것이다.

⑤ '건너서'는 '건너- + -어서'에서 'ㄷ'가 탈락한 것이다.

- 01 ㉠ 자음, ㉡ 모음, ㉢ 소리의 길이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개수, ㉣ 축약은 두 음운의 성질을 지닌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지만, 탈락은 둘 중 한 음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14 ㉠ 순하다, ㉡ 거센소리되기 15 ㉢ 16 ㉣ 17 ㉣
 18 ㉣ 19 ㉢ 20 ㉢ 21 ㉠ 더듬찌 ㉡ 자+-+았+-+다 ㉢ +
 22 ㉢ 23 ㉠ 24 ㉠ [이러케], 거센소리되기 ㉡ [일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01 음운의 종류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말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 모음과 소리의 길이가 있다.

참고자료 ++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는 음운에 속한다. 왜냐하면 소리의 길이가 다른 것만으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늘고 긴 대를 엮어서 만든 ‘발’은 [발]로 길게 발음하지만, 다리 끝에 붙은 ‘발’은 [발]로 짧게 발음한다. 소리가 길게 나는 것은 ‘:’라는 기호로 표시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다.

02 음운 변동 현상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우리말을 좀 더 쉽게 발음하면서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생한 현상이다.

03 ‘물난리’가 [물랄리]로 발음될 때, ‘난’의 첫소리 ‘ㄴ’은 앞말 ‘물’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유음화되고, ‘난’의 끝소리 ‘ㄴ’은 뒷말 ‘리’의 첫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유음화된다. 유음화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없[은:는]’은, ‘없’의 끝소리 ‘ㅂ’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ㅃ’으로 발음되고, 이 ‘ㅃ’이 ‘는’의 첫소리인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ㅃ’으로 비음화(교체)된 것이다.

② ‘색연필[색년필]’은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의 단어가 반모음 ‘[j]’으로 시작하는 단어끼리의 합성어이므로 ‘색’과 ‘연필’ 사이에 ‘ㄴ’이 첨가되었다. 또한 ‘색’의 끝소리 ‘ㄱ’이 연결되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비음화(교체)된 것이다.

④ ‘잡도리’가 [잡뜨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이며,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와 같은 된소리되기는 ‘교체’로 보아야 한다.

⑤ ‘급행열차[그평널차]’에서는 ‘급’의 끝소리 ‘ㅂ’과 ‘행’의 첫소리 ‘ㅎ’이 만나 ‘ㅃ’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끼리의 합성어이므로 ‘급행’과 ‘열차’ 사이에 ‘ㄴ’이 첨가되었다.

04 (가)는 거센소리되기, 즉 자음 축약의 예이다. (나)는 구개음화, 즉 교체의 예이다. (다)는 모음 축약의 예이다. (라)는 자음 탈락의 예이다. 따라서 (나)와 (다)는 둘 다 음운이 탈락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물히다’와 (나)의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예이므로 음운의 교체로 볼 수 있다.

② (가)는 자음 축약, (다)는 모음 축약이 일어나는 예이므로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③ (가)는 축약이, (라)는 탈락이 일어나는 예이므로 모두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⑤ (다)는 동사 ‘그리다’를, (라)는 동사 ‘울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모음 축약과 자음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05 화살의 발음은 [화살]이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 네 개의 단어는 모두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흙을’의 발음은 [흙글]이다.

② ‘많은’의 발음은 [마는]이다.

③ ‘국물’의 발음은 [궁물]이다.

⑤ ‘먹다’의 발음은 [먹따]이다.

06 ‘굳이[구지]’는 구개음화, ‘학교[학교]’는 된소리되기, ‘종로[중노]’는 비음화, ‘축하[추카]’는 거센소리되기, ‘붙이다[부치다]’는 구개음화, ‘만리포[말리포]’는 유음화, ‘백마강[뱅마강]’은 비음화가 각각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둘 다 비음화가 일어난 ‘종로[중노]’와 ‘백마강[뱅마강]’이다.

07 <보기>의 단어들은 각각 ‘앞날[안날]’, ‘농는[논는]’, ‘항로[항:노]’, ‘끓는다[궁는다]’로 발음된다. 각각 ‘ㅃ(ㅂ)’이 ‘ㅃ’, ‘ㅎ(ㄷ)’이 ‘ㄴ’, ‘ㄹ’이 ‘ㄴ’, ‘ㄹ(ㄱ)’이 ‘ㅇ’으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사례이다.

08 음운 변동 현상인 유음화가 일어나면, 단어의 표기는 ‘칼날’, ‘권력’이지만 발음은 [칼탈], [퀵력]이 되므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음운 변동 현상은 발음을 쉽게 하거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어난다.

|오답풀이 ① 유음화는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② 음운 변동은 대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④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⑤ ‘ㄹ’이 ‘ㄴ’의 앞에 놓일 때도, 뒤에 연결될 때도 모두 유음화가 일어난다.

09 ‘꽃이’는 [꼬치]로 발음되지만, 이는 구개음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말 끝소리 ‘ㅈ’이 연음된 것이다.

|오답풀이 ② ‘말이’는 [마지]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③ ‘훑이다’는 [훑치다]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④ ‘걷히다’는 [거치다]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⑤ ‘밭밭이’는 [난:나치]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10 '밭이랑'은 구개음화의 조건 중에서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난다는 조건과 'ㄷ, ㅌ'이 앞말의 끝소리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뒷말 '이랑'이 '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즉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인 모음 'ㅣ'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바치랑]이 아닌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11 <보기>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환경과 그 예를 제시한 것이다. '갈등'의 받침은 'ㄱ, ㄷ, ㅂ'이 아니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발음은 [갈똥]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이는 '갈등'이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연결되는 한자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12 <보기>에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은 거센소리되기이다. 선택지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은 '굽히다[구피다]'이다. 앞말의 끝소리인 예사소리 'ㅂ'이 뒷말의 첫소리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ㅍ'으로 발음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덥지[덥: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같은[가튼]'은 받침이 연음된다.

③ '난로[날: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⑤ '물느내[문:느내]'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13 축약은 두 음운이 두 음운의 성질을 모두 가진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탈락은 두 음운 중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만이 남는 것이다. 따라서 공통점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두 음운의 성질이 보존되었느냐 혹은 그중 한 음운의 성질이 완전히 사라졌느냐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는 공통점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축약은 두 음운의 성질이 남아 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탈락은 두 음운 중 하나만 남아 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4 '술하다'는 'ㅅ, ㅆ, ㅈ, ㅊ, ㅌ, ㅎ'이 음절의 끝에 올 경우 'ㄷ'으로 발음한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순하다]로 발음된다. 이어 [순하다]에서 받침 'ㄷ'이 뒤에 연결되는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수타다]로 발음된다.

15 **관자쌍의 풀이** 한 단어에 하나의 음운 변동 현상만 일어날 때도 있지만,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 제시된 단어를 발음해 보고, 그러한 발음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까지 배운 음운 변동 현상을 떠올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해.

'굳힌'은 두 단계를 거쳐 발음된다. 우선 받침 'ㄷ'이 뒤에 연결되는 'ㅎ'과 서로 만나면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이때 발음은 [구틴]이 된다. 이때 'ㅌ'이 모음 'ㅣ'와 만나고, 원래 '히'는 사동 접미사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구친]이 최종 발음이 된다. 결론적으로 '굳힌'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은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라고 할 수 있다.

16 '대관령'은 '관'의 끝소리 'ㄴ'이 뒷말의 첫소리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되어 [대:팔령]으로 발음되며, '오죽헌'은 '죽'의 끝소리 'ㄱ'이 뒷말의 첫소리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오주켄]으로 발음되며, '한류'는 '한'의 끝소리 'ㄴ'이 뒷말의 첫소리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되어 [할:류]로 발음된다.

17 '물혀'의 받침 'ㄷ'이 뒷말의 첫소리 'ㅎ'과 만나면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무터]가 된다. 이때 'ㅌ'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ㅑ'를 만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 [무쳐]로 발음된다. 그런데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1에 따라 용언의 활용형 '쳐'는 [쳐]로 발음하므로 [무쳐]가 최종 발음이 된다. 이때 음운 변동이 일어난 순서는 거센소리되기 → 구개음화이므로, 구개음화가 먼저 일어났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8 ㉠ '크치고'는 용언 '크다'의 어간 '크-'에 '-어지다'가 결합되면서 'ㄷ'가 탈락하므로,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풀이 ① ㉠ '확정[확쟁]'은 받침 'ㄱ' 뒤에 'ㅈ'이 연결되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② ㉡ '역할[여칼]'은 받침 'ㄱ' 뒤에 'ㅎ'이 연결되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③ ㉢ '합니다[함니다]'는 받침 'ㅂ' 뒤에 비음 'ㄴ'이 연결되어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⑤ ㉤ '관리[괘리]'는 받침 'ㄴ' 뒤에 유음 'ㄹ'이 연결되어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19 두음 법칙은 '한자음'이 단어의 첫 글자로 쓰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는 고유어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여'가 원래 '녀'나 '려'로 소리 나는 글자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내일'의 '내(來)'는 원래 '래'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 'ㄹ'이 'ㄴ'로 바뀐 것이다.

② '예의'의 '예(禮)'는 원래 '례'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 'ㄹ'이 'ㅇ'으로 바뀐 것이다.

④ '이발소'의 '이(理)'는 원래 '리'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 'ㄹ'이 'ㅇ'으로 바뀐 것이다.

⑤ '유행'의 '유(流)'는 원래 '류'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 'ㄹ'이 'ㅇ'로 바뀐 것이다.

20 (가)는 비음화가, (나)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담력[담:넉]'은 받침 'ㄹ' 뒤에 연결된 'ㄹ'이 'ㄴ'으로 바뀐 것이므로 (가)에 해당하는 예이다. '신라[실라]'는 받침 'ㄴ'이 뒤에 연결된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변한 것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선택지의 '국물[궁물]', '말머느리[만머느리]'는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가)에 제시된 것과 다른 환경에서 비음화되며, '임진란[임:진난]'은 'ㄴ'의 뒤에 'ㄹ'이 이어지지만, [ㄹ]로 발음되지 않는다.

21 <보기>는 용언을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음운 변동 현상 두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더듬지'는 받침이 'ㄴ, ㅁ'인 어간 뒤에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었으므로 [더듬찌]로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잡다'는 '자-+-았-+-다'가 결합하면서 모음 'ㅏ'가 탈락한 경우이다.

22 (다)의 예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환경은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이다. 또한 '툭밥'은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동일한 예사소리지만, '국수'는 'ㄱ'과 'ㅅ'이 만나기 때문에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동일한 예사소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23 '서서'는 어간 '서-'에 어미 '-어서'가 결합되어 모음 'ㅏ'가 탈락한 것이므로 음운 탈락이 일어나는 사례이다.
오답풀이 ② '달찌'는 받침 'ㄷ' 뒤에 'ㅈ'이 연결되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발음은 [달찌]이다.
 ③ '담가도'는 활용되는 과정에서 모음 'ㅓ'가 탈락하는 사례이다.
 ④ '종로'는 'ㄹ'이 비음 'ㅇ'을 만나 'ㄴ'으로 비음화되는 사례이다.
 ⑤ 두음 법칙은 한자어 첫머리의 'ㄴ, ㄹ'을 탈락시키거나, 'ㄹ'을 'ㄴ'으로 바꿔 발음하는 것이다. '노인'의 '노(老)'는 원래 '로'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 ㉠ '이렇게'의 발음은 [이러케]로 '렇'의 끝소리 'ㅎ'과 뒷말의 첫소리 'ㄱ'이 만나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있다'의 발음은 [인따]로, '있'의 끝소리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발음되고, 'ㄷ' 뒤에 뒷말 '다'의 첫소리 'ㄷ'이 연결되어 'ㅌ'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의 올바른 발음과, 거센소리가 일어났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의 올바른 발음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2) 한글 맞춤법

확인 문제

243쪽 1 ㉠ 소리 ㉡ 어법 ㉢ 단어 2 ㉡ 3 ㉢ 4 두음 법칙 5 ㉢ 6 ㉤

1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그 뜻을 아는 데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어법에 맞게 형태를 고정하여 적을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 '곳곳이'는 명사 '곳곳'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이다. 이는 용언 어간이 아니라 명사에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보기>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더듬이'는 동사 '더듬다'의 어간 '더듬-'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이때 원형 '더듬-'을 밝혀 적었다.

③ '많이'는 형용사 '많다'의 어간 '많-'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이때 원형 '많-'을 밝혀 적었다.

④ '벌이'는 '벌다'의 어간 '벌-'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이때 원형 '벌-'을 밝혀 적었다.

⑤ '굳이'는 '굳다'의 어간 '굳-'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이때 원형 '굳-'을 밝혀 적었다.

3 '웃고름'은 [온꼬름]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ㄴ'으로 발음되지만, 결합하는 명사 중 앞의 단어가 받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사례는 위의 두 가지 조건에도 모두 해당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국어(國語)'와 '사전(辭典)'은 모두 한자어이다.

② '문고리'는 '문'과 '고리'가 결합한 단어이다. 이때 앞 단어는 '문'으로, 'ㄴ' 받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④ '잇몸'은 '이'와 '뭉', 즉 고유어끼리의 합성어로 'ㄴ' 소리가 덧나서 [인뭉]으로 발음된다.

⑤ '나뭇잎'은 '나무'와 '잎', 즉 고유어끼리의 합성어로 'ㄴ ㄴ' 소리가 덧나서 [나뭇닙]으로 발음된다.

4 단어의 첫머리에 일부 소리가 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다른 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은 '두음 법칙'이다. 두음 법칙은 한자음에서만 일어나며, 이로 인해 바뀐 소리는 바뀐 대로 표기한다.

5 'ㅅ'을 적을지 'ㅆ'을 적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아 된소리의 표기에 관한 한글 맞춤법을 찾아야 한다. '쓱쓱'에는 '쓱'과 '씩'이라는 비슷한 음절이 겹쳐서 소리 나기 때문에 같은 글자인 'ㅆ'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항은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이다.

6 '컹'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따라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그 앞말인 조사 '는'에 붙여 써야 한다. 이때 '는' 역시 조사이므로, '컹'과 마찬가지로 앞말 '먹기'에 붙여 써야 한다. 그 결과 '먹기는컹'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풀이 ① '중'은 의존 명사이므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을 적용해야 한다.

② '머거'는 동사 '먹다'의 어간 '먹-'과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 제15항을 적용해야 한다.

③ '쏟솔한'의 '쏟'과 '솔'은 유사한 소리가 겹쳐 나는 것이므로,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 제13항을 적용하여 '쏟솔한'으로 적어야 한다.

④ '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250~253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④ 07 ③
 08 ③ 09 한V번은V속았지만V다시는V바보처럼V속지V않을V거야.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8 우리 고깃집. 하나 이상의 고유어가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첫소리는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19 ⑤

01 한글 맞춤법 총칙에 대한 문제이다. 어법에 맞도록 적으려면, 단어의 원형을 살려 적어 주어야 한다. '더위'의 기본형은 형용사 '덥다'이므로 어간의 원형은 '덥-'이다. 따라서 '더위'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② '씻었다'는 [씨싨따]로 발음되는데 동사 '씻다'의 어간 '씻-'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③ '넓다'는 [널따]로 발음되는데 형용사 '넓다'의 어간 '넓-'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④ '깎았다'는 [까깎따]로 발음되는데 동사 '깎다'의 어간 '깎-'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⑤ '앉혔다'는 [안첸따]로 발음되는데 동사 '앉다'의 어간 '앉-'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02 ㉠ '쓰러진'의 원형은 '쓰러지다'이다. '쓰러지다'는 본디 '쓸다'가 다른 용언과 결합하여 새로 만들어진 용언이다. '쓰러지다'는 '서 있다가 바닥에 눕는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쓸다'가 가진 '쓰다듬거나 문지르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03 '아래'와 '니(이)'를 합치면 [아랜니]로 발음된다. 이는 없던 'ㄴ'이 덧난 것이므로 1, 2, 3-2단계를 만족시켜 사이시옷을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꽃가마'는 '꽃'과 '가마'의 합성어이지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다. 따라서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② '대가(代價)'는 한자끼리 합쳐진 말이다. 따라서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③ '콧구멍'은 고유어 '코'와 '구멍'의 합성어로 [코꾸멍]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는 3-1단계를 만족시킨다.

④ '잇몸'은 고유어 '이'와 '몸'의 합성어로 [인몸]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뒷말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이 덧난다는 3-2단계를 만족시킨다.

04 '깟잎'은 '깨'+ '잎'의 합성어로 [깟닙]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이 덧나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는 예이다.

05 '뵈었다'의 준말은 한글 맞춤법 제35항의 '붙임 2'를 적용하여 '뵈다'로 적어야 한다. 어간 '뵈-'가 'ㄴ'으로 끝나고, 이 뒤에 '-었-'이 어울린 경우이기 때문에, '뵈-'으로 줄고, 준 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06 (가)와 (나)의 모든 단어는 된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가)는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며, (나)는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이다.

07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은 '두음 법칙'과 그 예외에 관한 것이다. '전률'에서 '률(栗)'은 단어의 첫머리에 놓이지 않으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붙임 1'에서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전율'로 적어야 한다.

08 '확률'에서 '률'은 단어의 첫머리에 놓이지 않으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앞말이 '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는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률'로 적는다.

오답풀이 ① '갑짜기'는 '갑자기'로 고쳐야 한다. 한 단어 안에서, 뒷말 첫소리인 예사소리 'ㅈ'이 앞말의 받침 'ㅂ'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절뚝거리며'는 '절뚝거리며'로 고쳐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④ '통화량'은 통화량으로 고쳐야 한다. 한자음 '량(量)'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곳에 온 경우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본음대로 '통화량(通貨量)'으로 적는다.

⑤ '시청율'은 '시청률'로 고쳐야 한다. 한자음 '률(率)'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곳에 온 경우이고, 또 앞말이 'ㅇ'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는 두음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청률'로 적는다.

09 우선 한글 맞춤법 총칙에 따라 모든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 특히 이 문장에서는 단위 명사이자 의존 명사인 ‘번’을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는 것,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칭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인 ‘처럼’을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는 점, 그리고 ‘거야’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인 ‘거’에 서술적 조사 ‘이다’가 붙어 활용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10 ㉞의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㉞의 ‘중’은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풀이 ㉞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존 명사 ‘지’를 바르게 띄어 쓴 경우이다.

㉞은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사 ‘째’를 앞말에 붙여 바르게 쓴 경우이다.

㉞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인 ‘커녕’을 앞말에 잘 붙여 쓴 경우이다. 참고로 ‘느커녕’은 두 보조사 ‘느’와 ‘커녕’이 결합한 조사이다.

11 ㉠의 ‘같이’는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조사에 관한 규정인 제41항에 근거하여야 하고, 앞말에 붙여 ‘매일같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자료 ++ ‘같이’가 부사로 쓰여 띄어 써야 할 때

1.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를 의미할 때
㉞ 모두 같이 갑시다.
2.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를 의미할 때
㉞ 예상한 바와 같이 성적이 떨어졌다.

12 ‘쏟슬하게’를 ‘쏟쓸하게’로 고쳐 쓴 이유는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에 따라 ‘쏟’과 비슷한 음절인 ‘슬’의 ‘스’를 ‘쏟’의 ‘쓰’와 같은 글자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 어간 ‘씨-’의 ‘시’에 ‘-어-’가 어울린 것이기 때문에 ‘쏟야’ 또는 ‘쏟어야’로 적어야 한다.

㉡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따라 ‘씨-’에 ‘-어야’가 합쳐진 것이므로 ‘시’와 ‘시’가 줄어든 ‘새’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고친 이유가 적절하다.

㉢ 한글 맞춤법 제13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기 때문에 둘 다 ‘쓰’로 적어야 한다.

㉤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깨달음이 나는 된소리, 즉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ㄴ, ㄹ,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다.

13 ‘그 친구’가 밥을 많이 먹었다는 과거 사실에 대해 감탄하는 문장이므로, ‘-더’가 결합한 형태인 ‘-던데’로 적어

야 한다. 따라서 ‘그 친구 밥을 참 많이 먹던데!’로 고쳐야 한다.

14 ‘달맞이’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또는 팔월 보름날 저녁에 산이나 들에 나가 달이 뜨기를 기다려 맞이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 명사 ‘달’과 동사 ‘맞다’의 어간 ‘맞-’에 접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졌다. 이때 어간의 원형 ‘맞-’을 밝혀 적는 이유는 한글 맞춤법 제19항에서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했기 때문이며, 부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15 ‘해소될까’는 동사 ‘해소되다’의 어간 ‘해소되-’에 어미 ‘-ㄹ까’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다. ‘-ㄹ까’에는 ‘되’의 ‘되’와 어울려 ‘새’로 될 만한 ‘-어’나 ‘-었-’이 없으므로, ‘해소될까’로 적어서는 안 된다.

16 음운 변동 현상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소리, 즉 발음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음운 변동 현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은 말하거나 듣기와 같이 음성을 수단으로 상호 작용할 때이다. 따라서 쓰기를 통해 상호 작용할 때에는 주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17 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쓰기를 통한 의사소통이 개인이 몸 담고 있는 단체나 지역, 국가로 확대되어서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8 ‘고깃집’은 고유어 ‘고기’와 ‘집’이 결합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고기집]으로 발음되어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우리 고깃집’을 ‘우리 고깃집’으로 바르게 고쳐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사이시옷을 적어야 함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9 어간이 ‘시’로 끝나는 말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새’로 축약된다. 따라서 어간 ‘되-’에 어미 ‘-어요’가 결합한 이 경우는 축약하여 ‘돼요’라고 적거나, 두 음절을 줄이지 않고 구분한 ‘되어요’라고 적어야 맞다.

|오답풀이 ㉠ 받침 ‘ㄴ, ㄹ, ㄹ, ㅁ, ㅇ’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날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듬뿍]이 맞는 발음이므로 ‘듬뿍’으로 적어야 한다.

- ② '바르면'의 기본형은 동사 '바르다'이다. 'ㄹ'이 덧붙 이유가 없으므로 '바르면'으로 적어야 한다.
- ③ 한자음 '녀(女)'는 두음 법칙의 대상이지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으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본음대로 '남녀노소'라 적어야 한다.
- ④ '우윳빛'이 맞는 표현이다. '우윳빛'은 한자어 '우유(牛乳)'와 고유어 '빛'의 합성어이고 앞말이 모음 'ㅍ'로 끝난다. 또한 [우유뽀] 또는 [우윳뽀]으로 받음되므로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와 한자는 사이시옷의 조건을 충족한다.

대단원 평가 문제

258~261쪽

- 01 ②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① 07 ⑤
 08 ② 09 ④ 10 ③ 11 ③ 12 ⑤ 13 ③
 14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5 ② 16 ④ 17 ⑤ 18 글쓰기와 독자가 의미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19 ③ 20 ⑤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한다. 이때 이 음운은 표기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한글 맞춤법의 총칙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만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답풀이** ① 우리말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
 ③ 소리의 길이도 음운이다. 예를 들어 짧게 발음하는 눈[눈]은 신체 부위인 눈에 해당하지만, 길게 발음하는 눈[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해당한다.
 ④ 음운의 개념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⑤ 음운 변동 현상의 개념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이다.

02 '줄넘기[줄림끼]'는 비음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와 'ㄱ'이 'ㄺ'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데, 이 둘은 모두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쌓지[싸치]'는 'ㅎ'이 'ㅈ'과 만나 'ㅊ'으로 줄어드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난다. '따라'는 어간 '따르-'와 어미 '-아'가 결합하여 모음 'ㅏ'가 탈락하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

03 '대관령'은 'ㄹ' 앞에 놓인 'ㄴ'의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대궐령]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종로'는 비음 'ㅇ' 뒤에서 'ㄹ'이 'ㄴ'으로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종노]로 발음해야 한다.
 ② '강릉'은 비음 'ㅇ' 뒤에서 'ㄹ'이 'ㄴ'으로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강능]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한라산'은 유음 'ㄹ' 앞에서 'ㄴ'이 'ㄹ'로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할라산]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만리포'는 유음 'ㄹ' 앞에서 'ㄴ'이 'ㄹ'로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말리포]로 발음해야 한다.

04 (가)와 (나)는 각각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여러 환경 중 한 가지이다. '뽀대다'는 받침 'ㄷ' 뒤에 'ㄷ'이 연결되어 [뽀대다]로 발음되므로 (가)의 예에 해당한다. 한자어 '절도(竊盜)'는 'ㄹ' 받침 뒤에 'ㄷ'이 연결되어 [절또]로 발음되므로 (나)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① '입술[입쉴]'은 (가)의 예에 해당하지만, '뺨[뺨따]'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예로 볼 수 없다.
 ② '더듬다[더듬따]'는 어간 받침 'ㄹ'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의 예이다. '발전[발쩐]'은 한자어이며 'ㄹ' 받침 뒤에서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나)의 예로 볼 수 있다.
 ④ '몰상식[몰쌍식]'은 (나)의 예이고, '웃고름[올꼬름]'은 (가)의 예이다.
 ⑤ '꽃다발[꼇따발]'은 (가)의 예에 해당하지만, '물동이[물똥이]'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예로 볼 수 없다.

05 '남기고'는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남다'의 어간 '남-'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고 이에 어미 '-고'가 결합된 말이다. 따라서 '남기고'는 어간 받침 'ㄹ' 뒤에 'ㄱ'이 결합했지만, [남끼고]가 아니라 [남기고]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사동 접미사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주동사의 어간에 붙어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히-/-리-/-기-/-우-/-구-/-추-'가 있다.

예) 그 학생은 책을 읽었다. (주동)
 •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책을 읽히셨다. (사동)

06 '뻘'은 '되다'의 어간 '되-'에 '-었-'과 '-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되-'의 'ㄱ'과 '-었-'이 축약되어 준말 '뻘'이 된 것이지 탈락한 것이 아니다.

07 '쇠붙이'는 [쇠부치/췌부치]로 발음되는데, 이는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의 결과이다.

08 (가)는 비음화, (나)는 유음화, (다)는 구개음화의 예를 각각 제시한 것이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며, 모음 '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가)의 '닫는다[단는다]'는 'ㄷ'와 비음 'ㄴ' 사이에서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선지 ②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09 (가)는 비음화, (나)는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주목받는다[주:목뽀는다]'에서는 받침 'ㄱ' 뒤에 오는 'ㅂ'이 'ㅃ'

으로 변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받침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가)와 (나)의 음운 변동 현상이 모두 일어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앞날[암날]’은 ‘ㅍ(ㅂ)’이 ‘ㄹ’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② ‘달나라[달라라]’는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③ ‘할 것을[할꺼슬]’은 ‘ㄱ’이 ‘ㄴ’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⑤ ‘만날 사람[만날싸람]’은 ‘ㅅ’이 ‘ㅆ’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10 <보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숲에서’의 ‘ㅍ’ 다음에는 자음이 아닌 모음 ‘ㅛ’가 오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 ‘ㅍ’을 ‘ㅛ’의 앞자리로 연음시켜 발음한다. 따라서 올바른 발음은 [수페서]이다.

11 ‘앞날[암날]’을 발음할 때에는 받침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ㅂ’으로 바뀌고, ‘ㅂ’이 비음 ‘ㄴ’을 만나 ‘ㅃ’으로 비음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오답풀이】 ① 색연필[생년필]은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서 [생년필]로 발음되는 것이다.

② 닭다[닥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닥다]가 된 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닥따]로 발음되는 것이다.

④ 굳힌[구친]은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구틴]이 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친]이 된 것이다.

⑤ 있대[읷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읷다]가 된 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읷따]로 발음되는 것이다.

12 제시된 질문은 한글 맞춤법에서 ‘어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것이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 즉 원래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이유는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3 ‘삶’에는 동사 ‘살다’의 어간인 ‘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접사 ‘-ㅁ’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제19항을 볼 때 ‘삶’의 의미가 어간 ‘살-’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마개’는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접사 ‘-애’가 붙은 것으로, ‘-애’는 ‘-이’나 ‘-음/-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임]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

② ‘너무’는 동사 ‘넘다’의 어간 ‘넘-’에 접사 ‘-우’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불임]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

④ ‘깊이’는 형용사 ‘깊다’의 어간 ‘깊-’에 접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19항]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⑤ ‘웃음’은 동사 ‘웃다’의 어간 ‘웃-’에 접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19항]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었다.

14 ‘자루’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기름지게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무기 따위를 세는 단위’를 의미하는 단위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자루’가 단위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함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5 ‘이틀째’에서 ‘-째’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쓴다.

16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ㄹ’을 ‘ㅇ’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러나 ‘렬/률’은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더라도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쓰이면 ‘열/울’로 적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선률’의 경우 앞 글자 ‘선’이 ‘ㄴ’ 받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선율’로 적어야 한다.

17 한글 맞춤법 제45항에는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라는 규정이 있다.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입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이 문장에서 ‘이’와 ‘영’을 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앞뒤 모두 띄어 쓴다.

【오답풀이】 ① ‘채’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② 어미 ‘-(으)ㄹ걸, -(으)ㄹ게’ 등은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숙제할게요’로 고쳐야 한다.

③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어야 하므로 ‘잘 하더라’로 고쳐야 한다.

④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어간 ‘맞-’의 원형을 살려 ‘달맞이’로 고쳐야 한다.

18 (가)의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글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댓글을 읽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접하고 자신이 처음에 지녔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글쓴이와 독자가 글의 의미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나)를 바탕으로 글쓰기가 의사소통 행위임을 적절하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9 ‘없어요’는 ‘없다’의 어간 ‘없-’에 어미 ‘-어요’가 붙어 활용된 것으로, 단 하나의 용언만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에 적용해야 할 한글 맞춤법 규정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이다.

20 ‘할 수 있다[할쑤읷따]’에서 ‘수’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유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할’은 한자어가 아니다.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연결되어 된소리로 발음되는 예로는 ‘갈등[갈똥](葛藤)’, ‘물질[물질](物質)’이 있다.

- 01 ④ 02 ④ 03 낱 → 놓-+아, 왔으면 → 오-+았-+으면
 04 ② 05 ③ 06 아름다울뿐 → 아름다울 뿐. '뿐'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07 ⑤ 08 ⑤ 09 ④

01 '굳힌'이 [구틴]으로 발음되는 ㉠에서는 받침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제시된 선택지 중에서는 '말형[마텅]'과 '종지[조:치]'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구틴]이 [구친]으로 발음되는 ㉠에서는 'ㄷ'이 모음 'ㅣ'를 만나 'ㅌ'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제시된 선택지 중에서는 '해돋이[해도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2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것은 '엷히고'처럼 어법에 맞게 본래 형태를 고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설키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므로 이와는 관련이 없다. 한편 '엷히고[얼키고]'를 '얼키고'로 적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얼키고'로 적으면, 본래 단어의 원형인 '엷다'와 형태 면에서의 유사성이 줄어들어, 따라서 '엷다'와의 의미상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03 '놉'는 동사 '놓다'의 어간 '놓-'에 '-아'가 결합하여 줄어든 것이다. '왔으면'은 동사 '오다'의 어간 '오-'에 어미 '-았-'과 '-으면'이 결합한 말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제35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글 맞춤법 제35항

[제35항] 모음 'ㅛ, ㅠ'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ㅛ/ㅠ, ㅛ/ㅟ'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1] '놓아'가 '놉'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ㅛ'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ㅛ, ㅟ'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04 <보기>는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에 관한 규정이다. '베갯잇'은 순우리말(고유어) '베개'와 순우리말 '잇'이 합성된 것이고, 발음이 [베갯님]으로 나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1-(3)을 충족하여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에 해당한다.

05 ㉠ '놓고[놉꼬]'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있는[인는]'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 '아름답습니다[아름답습니다]'에서는 된소리되기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 '역할[여갈]'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적합한[저카판]'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과 ㉡이다.

06 ㉠의 '아름다울뿐'에서 '뿐'은 다만 어떠한거나 어떠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틀린 부분을 찾아 알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뿐'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함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7 '유속(流速)'과 '급류(急流)'는 둘 다 흐를 류(流) 자가 들어가 있지만, '류(流)'가 문장의 첫머리에 올 때는 '유'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류'로 적는다. 이는 형태를 고정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① '꽃만'이 [꼰만]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 때문이다. 그러나 '꽃만'이라고 원형을 밝혀 표기했기 때문에 비음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어간 '막-'에 어미 '-아'가 결합한 '막아'를 '마가'로 적지 않고 어간과 어미를 살려 적은 것은 원래 형태를 살려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③ '미달이'가 [미다지]로 발음되는데도 '미달이'로 적은 것은 원형을 살려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④ '술'과 '나무'의 합성어를 어법에 맞게 적으려면 그 원형을 살려 '술나무'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소나무'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8 제시된 규정은 두음 법칙에 관한 한글 맞춤법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렬, 룰'은 단어 첫머리에 오는 경우 혹은 문장 첫머리에 오지는 않지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올 경우에만 '열, 율'로 적는다. '성공률'에서 '룰'은 단어의 끝에 위치하고 있고, 앞말은 모음이 아닌 자음 'ㅇ'으로 끝나고 있으므로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룰'로 적어야 한다.

09 <보기>는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쓰일 때 어떻게 소리 나는지에 대한 규정인데, 제시된 한글 맞춤법 제10항~제12항에서는 이를 표기에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시된 조항과 <보기>를 통해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리본'은 외래어이다.

②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의 '다만'을 보면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하는 데에도 예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두음 법칙은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으로 소리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④ 첫소리가 'ㄹ'인 한자음은 바로 'ㄴ'이나 'ㅇ'로 발음될 뿐, 'ㄴ'을 거쳐 'ㅇ'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다. '래일(來日)'이 '내일[내일(來日)]'로 소리 나고 표기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확인 문제 ①

271쪽 1 ① 2 ① 3 ②

1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은 '읽기 전' 과정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읽기 중'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 중이기 때문에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

2 글의 처음 부분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글쓴이는 우리가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데, 과연 이 시각 정보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가 자료로 제시한 실험은 국제 학술지에 실렸던 것으로, 글의 내용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이 실험의 결과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③ 처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시각에 의존하는 이유는 정보의 80퍼센트를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임이 이미 드러나 있다.

④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실험은, 실험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실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글에서 이 점을 논하고 있지 않다.

⑤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에서 왜 하필 '고릴라'인지보다 집중하지 않은 대상을 인지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확인 문제 ②

273쪽 1 ④ 2 ① 3 ①

1 이 글은 '무주의 맹시'의 개념 및 시각 피질의 영역과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설명 대상을 서로 대조하거나 차이점을 부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운데 1㉔에서 '무주의 맹시'란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

②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정확하게 연주되어야 제대로 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역할에 맞게 조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추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지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등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가운데 1'에서 '무주의 맹시'는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이다.

3 시각 피질의 V1, V2 영역은 물체의 기본적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빛을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것은 뇌가 시각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확인 문제 ③

275쪽 1 ② 2 ② 3 ⑤ 4 ④

1  **인자샘의 풀이** 내가 직접 읽기 활동을 한다고 상상해 보. '읽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읽기 중'에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 '읽기 후'에는 선지에 나온 활동을 살펴보고 상상하면 되겠지. '읽기 후' 과정은 글을 다 읽은 후에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며 읽는 것은 '읽기 후'가 아니라 '읽기 중' 과정에 적절한 활동이다.

2 이 글의 글쓴이는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설명한 후, 글의 끝부분에서 이러한 뇌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서로 갈등하는 일이 줄어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제안한 것이다. 글쓴이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일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3 '가운데 2'의 내용을 볼 때, 우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라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4 우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처리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라는 전략을 사용한다. ④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뇌의 한계를 고려하여 정보를 받아들여 하기 위한 방법이다.

오답풀이 ③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 ⑥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 ③ 십 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 ⑤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는 모두 뇌가 집중하지 않은 정보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01 ㉔ 02 ㉒ 03 ㉓ 04 ㉓ 05 ㉓ 06 눈으로 보고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말한다. 07 ㉓ 08 ㉔ 09 ㉓ 10 ㉓ 11 ㉔ 12 ㉔

01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9초에 걸쳐 등장한다. 같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았다.

02 글쓴이는 (가)에서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속 고릴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글쓴이는 시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재고하게끔 하기 위해 이 실험을 소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에서 ‘고릴라’가 중간에 나온다고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실험의 목적 때문이므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글에서는 시각의 능력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눈앞에 있는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④ 시각이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감각으로 얻은 정보보다 시각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⑤ 이 글에서는 눈으로 보는 정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로 그대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시각 정보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을 뿐 다른 감각의 균형을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3 ㉑과 ㉒은 질문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독자가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또한 이어질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므로 앞으로 다룰 내용을 알려주는 효과도 있다.

04 (라)의 내용에 따르면, V3는 형태를 구성하고, V4는 색을 담당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색맹이 되었다면, 색을 담당하는 V4의 손상을 의심해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우리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신호가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된다.

② (가)에 따르면, ‘무주의 맹시’는 시각의 손상으로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각의 손상 여부와는 무관하다.

④ (라)에 따르면, 시각 피질의 V1 영역은 물체의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한다고 하였다.

⑤ (마)에 따르면, 시각 피질의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05 (마)에서는 시각 피질의 모든 영역이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유추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무주의 맹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시각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대조되는 다른 대상이 나와 있지는 않다.

④ (라)에서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담당하는 기능을 열거하고 있다.

⑤ (가)에서 ‘무주의 맹시’와 관련된 실생활 속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06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주의 맹시’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고릴라’는 실험 속 고릴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보고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의 비유적 표현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보고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이라는 의미를 담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주술 호응에 맞는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7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자신이 본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절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라)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잘못 보거나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08 구절의 의미를 묻는 경우에는 바로 앞이나 뒤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㉑의 앞부분을 보면, 뇌의 많은 영역이 시각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09 **완자샘의 풀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해.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 찾아봐.

㉒은 집중하지 않은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 버리는 뇌의 특성을 말한다. 흰옷을 입은 조가 공을 패스하는 횡수를 셀 때 눈앞에 뻗어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패스 횡수를 세면서도 중간에 지나가는 고릴라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인지한 것으로, ㉑과는 거리가 먼 사례이다.

오답풀이 ①, ② 우리의 뇌는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제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한다고 하였다. 청각 역시 집중한 청각적 정보만을 뇌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 주므로 적절한 사례이다.

- ④ 빈자리를 찾는 데 집중하여 눈앞에서 손짓을 하는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사례이다.
- ⑤ 나이 든 어른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므로 적절한 사례이다.

10 제목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읽기 전’ 과정에 적합한 읽기 전략이다. ‘읽기 중’ 과정에는 질문하고 답하기, 중요한 내용에 밑줄 긋고 적어 두기, 관련 서적이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더 알아보기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읽기 전’ 과정에는 글 제목의 의미 추론해 보기,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글의 내용 예측해 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읽기 중’ 과정에는 글을 읽으며 중요한 정보에 밑줄 긋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글의 주요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 ⑤ ‘읽기 후’ 과정에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읽기 전에 예측했던 것과 비교하기, 친구들과 글의 내용에 관한 의견 나누기가 주로 사용된다.

11 ‘무주의 맹시’ 현상은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에 따르면, 집중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 버리는 것이 뇌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주의 맹시’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았어도 뇌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무주의 맹시’가 일어나는 이유는 뇌가 모든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뇌의 대부분의 영역이 시각에 배정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 ② (라)에서 시각만이 아니라 나머지 감각도 마찬가지로, 모두 정보를 선별하여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 ③ (다)에서 ‘무주의 맹시’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⑤ (라)에서 ‘무주의 맹시’는 시각의 손상 때문이거나 열빠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12 **완자쟁의 풀이** 밑줄 친 부분은 사례에 해당해. 이처럼 사례가 나올 때는, 그 사례가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사례의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글의 중요 정보를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중요 정보를 토대로 다시 사례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지.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에서와 같이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사례를 통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집중하지 않은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의 얼, 광화문

확인 문제 ①

287쪽 1 ③ 2 ③ 3 눈엣가시

1 광화문은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태조가 만든 것임은 알 수 있으나, 광화문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광화문은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다.

②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이다.

④ 광화문은 석축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예문을 터서 문루를 얹은 결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⑤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

서울의 사대문

서울을 보호하는 성곽의 동서남북에 네 개의 큰 대문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성문을 사대문이라고 한다.

| | |
|------------|---|
| 흥인지문 (동대문) | 조선 시대에 건립한 한양 도성의 동쪽 정문. 보물 제1호 |
| 돈의문 (서대문) | 조선 시대에 건립한 한양 도성의 서쪽 정문. 1915년에 일제가 철거해 흔적을 찾을 수 없음 |
| 승례문 (남대문) | 조선 시대에 건립한 한양 도성의 남쪽 정문. 국보 제1호 |
| 숙정문 (북문) | 조선 시대에 건립한 한양 도성의 북쪽 정문. 숙정문으로 불리다 숙정문으로 바뀜 |

2 일제가 광화문을 비틀어서 남산을 바라보게 한 이유는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3 가운데 ㉠에서 일제가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는 공사를 진행할수록 ‘그들에게는 광화문이 눈엣가시’였다고 하였다. 광화문이 조선 총독부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 문제 ②

289쪽 1 ④ 2 ③ 3 ④

1 광화문 철거와 관련하여, 당대의 신문들은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 및 그 과정을 보도하였다. 이를 통해 몇몇 일본인 학자가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나, 해외 여러 나라가 광화문 철거 소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가운데 ④에 따르면,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한 것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동아일보』이다. 『동아일보』는 1921년 5월에 광화문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총독부 새 청사가 완공될 무렵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을 헐어 버릴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5월 15일 자 기사에서 경복궁이 일반인에게 팔리며 훼손되기 시작하였음을, 1922년 10월 5일 자 기사에서는 광화문 보존 문제에 대한 기사를 실어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을 철거할 것임을 알렸다.

④, ⑤ 『동아일보』는 1926년 8월에 설의식의 고별사를 실었고, 그보다 앞서 광화문 이전 공사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3 ㉠은 『조선일보』에 실린 「나는 가나이다」라는 고별사이다. 이는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슬픈 심정을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이었다. ㉡은 『동아일보』에 실린 「헐려 짓는 광화문」이라는 고별사이다. 이 내용은 구슬프고 참담하여, 당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따라서 ㉠과 ㉡의 공통점은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이라는 데 있다.

확인문제 ③

291쪽 1 ⑤ 2 ⑤

1 설의식의 고별사는 일제의 광화문 훼손에 대한 울분과 저항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짧고 간결한 문체보다는 길고 만연한 문체에 가깝고, 열거법을 통해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석공의 망치가 네 가슴을 두드릴 때에도 너는 알음[知]이 없으리마는’ 등에서 광화문을 ‘너’라고 호칭하며 사람처럼 대하여 친근감과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네가 과연 어느냐, 모르느냐.’ 등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③ 전체적인 내용에서 일제의 광화문 철거로 인해 당시 조선 민족이 느낀 울분과 한이 드러나고 있다.

④ ‘오오, 가없어라!’ 등에서 영탄법을 사용하여 슬픔과 울분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2 이 글의 끝 부분에 보면, ‘여전히 광화문은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이지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북통일이나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일제가 광화문을 옮기려고 한 것은 우리의 민족혼,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이다. 설의식은 한 편의 글을 통해 이러한 일제의 의도를 폭로하며, 글로써 저항 의식을 나타냈다. 07 ③ 08 ④ 09 ①

01 (나)에 따르면,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6년째 되는 해, 조선 총독부가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다 하였다. 따라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마자 바로 그해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 따르면, 창건 당시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세종 때라고 하였다.

② (가)에 따르면, 원래 경복궁의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은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광화문의 주요 건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에 따르면, 일제는 광화문을 빼앗아 비틀어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다고 하였다.

④ (가)에 따르면, 일제는 단군을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시던 남산의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다고 하였다.

02 일제가 광화문의 방향을 비틀고, 남산의 국사당을 허물고 신사를 건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경복궁 앞뜰에 조선 총독부의 새 청사를 지으려고 한 것 또한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겠다는 야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03 글쓴이는 당시 보도된 신문 기사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경복궁이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당대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④ 이 글은 우리나라의 신문의 역사나 신문 기사의 형식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광화문의 역사를 설명하는 글이다.

② 경복궁을 매입한 것이 조선인과 일본인임을 알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는 경복궁이 훼손되는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신문 기사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04 「헐려 짓는 광화문」은 1926년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라는 기사보다 며칠 앞서 나온 기사이므로, 이를 1927년에 나왔다고 한 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5 **완자쌍의 풀이** 광화문 철거를 둘러싼 신문 보도와 그 보도가 미친 영향은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야. 보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광화문 철거를 둘러싼 신문 보도는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이끌어 내어, 결국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하는 대신 이전하기로 계획을 바꾸게 된다. 따라서 총독부가 광화문 철거를 홍보하기 위해 신문에 기사를 심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고 하였다.

- ② 『동아일보』와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폭로하며 광화문 철거 계획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 ③ 신문 보도를 통해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고 하였다.
- ④ 여론이 거세진 후,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접고, 대신 광화문의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06 ‘붓으로’는 글 쓰는 행위를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설의식은 고별사를 통해 일제의 의도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드러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붓’이 비유하는 바를 정확하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광화문을 옮기려고 한 일제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7 1995년은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된 해이다. (나)에서 오랜 논란을 빚은 끝에 철거가 결정되었다고 했으므로, 논란이 시작된 것은 1995년보다 전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① 광복을 맞이한 후에도 조선 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으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사용되었다.

- ② 정부 청사로 사용되던 조선 총독부 건물(중앙청)은 보수 작업을 거쳐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 ④, ⑤ 1995년부터 경복궁이 일부나마 다시 세워졌다고 하였으므로 2006년에는 경복궁이 어느 정도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광화문 복원 작업이 시작되어 2010년에 완료되었다.

08 (가)에서 광화문은 ‘충신도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며’, ‘수구당도 드나들고 개화당도 드나들던 광화문아!’ 등으로 보아 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가)는 일제의 광화문 훼손에 대한 울분과 저항을 담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단어는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인 맥수지탄(麥秀之嘆)이다.

오답풀이 ② 풍수지탄(風樹之嘆)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린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 ③ 망양지탄(亡羊之歎) -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 ④ 만시지탄(晩時之歎) -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말한다.
- ⑤ 비육지탄(髀肉之嘆) -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확인 문제 ①

303쪽 1 ⑤ 2 ②

1 학생 동아리라면 학교에서도 전시회를 열 수 있을 텐데 굳이 구청 강당을 써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구 공무원’의 질문에, ‘상우’는 이번 전시회는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다고 하였다.

2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상우’는 전시회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다. 먼저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가 있음을 내세우고 있고, 동아리 누리집을 통해 모금한 돈으로 어린이 재단을 후원할 것을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나, 조정 단계 ①을 보면, 상우네 동아리는 ‘구 주민’이 아니라 고등학생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찍은 사진을 전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상우네 동아리의 전시회에 전시되는 사진은 상우네 사진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찍은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전시회에 참여할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직접 사진을 찍는 데 참여하지는 않았다.

확인 문제 ②

305쪽 1 ⑤ 2 ①

1 ‘구 공무원’의 말을 통해 구청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는 있으나, 구청의 업무 중에 행사 홍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상우네 동아리에서 여는 사진 전시회이므로 이를 구청이 홍보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풀이 ①, ②, ④ 상우네 동아리는 최대한 많은 관객을 모으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전시회를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데, 학생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연회 등에서 전시회를 홍보할 능력이 있는 구 측에 전시회 홍보를 부탁하고 있다.

③ ‘상우’는 협상의 과정에서 4일 동안 열 예정이었던 전시회를 3일로 줄이자는 ‘구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합의를 따르게 되면 짧아진 전시회 기간만큼 관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상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 측에 전시회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

2 구청 강당은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상우네 동아리에서는 강당 대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외에 전시회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 상우네 동아리는 협상을 통해 구청으로부터 전시회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며, 전시회를 통해 기부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므로, 기부금을 포함해 어떤 금액도 후원 받았다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01 ①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③ 09 ④

01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측과 상대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장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입장 확인만 했을 뿐 서로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은 협상의 시작 단계가 아닌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2 (나)에서 '구 공무원'은 다음 주에 강당 대여 일정이 있는 데다가 '상우'의 제안이 강당 대여 규칙에 맞지 않다고 하며 '상우'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상우'는 사진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기를 원한다. 이 전시회는 학생뿐 아니라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다고 하며 구청 강당을 빌려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② (가)에서 '구 공무원'은 '상우'의 입장을 듣고 학교가 아닌 구청 강당을 빌리려는 이유를 물어보며, '상우'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

④ (다)에서 '상우'는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대신 전시회 홍보를 맡아달라고 하며 '구 공무원'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⑤ (라)에서 '구 공무원'과 '상우'는 서로 이익을 얻었음을 확인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03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④와 같이 학생회 임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논의하는 상황은 토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04 이 답화는 구청 강당을 빌려 사진 전시회를 열려는 '상우'가 '구 공무원'과 벌이는 협상이다. 두 사람은 협상의 절차에 따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결국 최선의 합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 협상, 토의, 토론

| | |
|----|--|
| 협상 |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 방법 |
| 토의 |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공동의 의사소통 방법 |
| 토론 | 특정한 논거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각자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밝히는 의사소통 방법 |

05 협상의 목적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므로, 상대측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06 상우네 동아리에서 여는 사진 전시회를 구에서 지역 주민에게 홍보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구청이 사진 동아리의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사진 동아리가 ○○구청의 문화 행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 협상과는 상관이 없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에 '상우'와 '구 공무원'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므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② '구 공무원'은 상우네 동아리의 사진 전시회에 강당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③ '상우'는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서 모금된 돈을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전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⑤ '구 공무원'은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시회를 홍보해 달라는 '상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07 (나)에 따르면, 어린이 재단 후원금은 사진 동아리 누리집을 통해 모금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전시회 입장료를 후원금으로 사용한다고 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상우네 동아리가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상우'가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려고 전시회를 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 공무원'이 전시회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라)에서 상우네 동아리가 구청의 강당을 빌리는 기간이 3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08 ㉠에서 '구 공무원'은 전시회 기간이 짧다고 하는 '상우'에게 전시회 날짜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상우'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9 (다)의 '구 공무원'은 강당을 빌려주는 구체적인 기간과 사용 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는 원칙을 바꾸어 상우네 동아리가 3일간 강당을 쓸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상우'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에게 일정 부분을 양보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은 '상우'가 협상의 안건을 제시한 것이다.

② ㉡는 전시회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③ ㉢는 강당을 빌릴 날짜와 관련하여 '상우'가 제안한 것이다.

⑤ ㉤는 전시회 기간이 줄면서 불이익이 생긴 '상우'가 상대에게 다른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01 ④ 02 ③ 03 패스 횟수를 세는 데 집중하다가 고릴라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③ 06 ③ 07 ③ 08 ③ 09 ③ 10 동아리 누리집에 사진을 올리면 후원금이 모금되고, 그것으로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면 전시회의 공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11 ⑤

01 이 글은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에 있는 실험을 소개하며, (나)에서 실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02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보면,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여 무려 9초나 등장한 뒤에 유유히 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고릴라가 학생들 사이로 가로질러 빠르게 뛰어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고 하였다.

② 참가자들에게 실험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가웃거렸다고 하였다.

④ (다)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의 절반은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⑤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동영상을 다시 보여 주자, 먼 첫번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였다.

03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실험 참가자들이 눈앞에 있는 고릴라를 보고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릴라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고릴라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보았지만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4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에 대한 보도를 본 당시의 독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여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거센 여론을 일으켰다.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일제는 광화문 철거 계획을 접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읽기가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인 정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05 (라)에서 ‘광화문’을 사람처럼 대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광화문과 거리를 두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광화문에 친근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글이다.

|오답풀이 ① 광화문이 ‘총독부 청사 까닭으로 헐리고 총독부 정책 덕택으로 다시 지어지리라 한다.’라고 하였다.

② ‘오백 년 동안 풍우를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어도 보고 설워도 할 뿐이다.’라고 하며 광화문이 조선의 민중들과 함께 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뚝딱딱’, ‘우지끈’과 같은 의성어로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광화문은 ‘의식 없는 물건이요, 말 못하는 물건이라’라고 하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표현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선 백성들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06 ㉠의 앞은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이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고, 뒤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일제가 광화문 철거 계획을 접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서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을 통해 논의의 방향이 전환되거나 새로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07 광화문은 조선 제일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이 문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정기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ㄴ). 또한 조선 백성을 조선 왕이 아닌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제의 의도를 알 수 있다(ㄷ).

|오답풀이 ㄱ. 광화문을 뼈뚫하게 비뚤었다는 것 자체가 광화문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광화문의 건축 양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ㄹ. 일제는 단군을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시던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다고 했으므로, 일제가 단군을 함께 모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가)의 첫 부분에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인식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없으니 인터넷에서 검색하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09 ‘구 공무원’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구청 강당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상우네 동아리의 전시회가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므로, ‘상우’가 학생이기 때문에 강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구 공무원’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10 ‘구 공무원’은 사진 전시회가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도’ 있다고 말한 후, ‘상우’의 어린이 재단 후원에 대한 대답을 들은 다음 전시회의 공공성을 인정하였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전시회의 공공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1 **○** **관자쌍의 풀이** (가)에서 알게 된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나)와 같은 협상의 전략에 활용해 보는 문제야. 선지의 내용이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자.

(가)에서는 우리의 뇌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본 것만이 옳다는 절대적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와 같이 상대가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어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가)의 내용과도 다르고, (나)와 같은 협상의 상황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고득점 평가 용어

322~325쪽

01 ① **02** ⑤ **03** (1) 상우 -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을 마련하였고, 구에서 전시회의 홍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2) 구 공무원 - 구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를 얻었다.

04 ⑤ **05** ⑤ **06** ④ **07** ② **08** ④

01 '상우'의 협상 목적은 사진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는 것이다. 전시회 홍보를 위한 구청의 협조 요청은 전시회 날짜를 바꾸게 되면서 추가로 협상한 사항이다.

02 구청에서 상우네 동아리 사진 전시회의 홍보를 맡게 된 것은 양측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다. (라)에서 '구 공무원'은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며, 협상에 만족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03 협상의 결과는 (라)에 나타나 있다. 양측은 상우네 동아리가 사진 전시회를 구청 강당에서 3일간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상우'가 전시회를 열 공간을 마련하였고, 구에서 홍보를 도와주기로 하였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구 공무원'이 구에서 하는 일을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4 '무주의 맹시'는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글에서 학생들의 웃음을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사진 전시회를 통해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도 살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⑤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내용과 연관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사진 전시회의 목적은 웃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지친 친구들을 웃음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② '무주의 맹시'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는 세상은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사진을 찍는 주체는 학생이지 주인이 아니므로 이 글의 내용과도 맞지 않다.

④ 실연한 뒤 보는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나 늙은 아버지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짠해지는 장면이다.

05 이 글에서는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우리의 뇌가 처리할 수 없으므로,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필요한 것이며, 이로 인한 우리의 한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뇌의 한계를 극복 하자는 말은 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시각 피질의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다)에서 잔소리를 흘려듣는 아이를 집중하게 하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다)에서 시각과 마찬가지로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우리의 뇌는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제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실험 참가자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은 눈이 잘못되었거나 얼빠져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집중하지 않은 '고릴라'라는 시각적 정보를 우리의 뇌가 몽개 버렸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06 '대니얼'의 처음 말을 보면, 우리의 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시각 정보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자고 하였다. 이로 보아 '대니얼'은 실험 참가자들이 고릴라를 보고도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7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색을 담당하는 V4 영역이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지된 화면으로만 보인다면 V5 영역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08 제시된 글에서 광화문이 물건이라고 한 것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광화문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조선 백성들을 대조하여 일제의 광화문 훼손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글은 광화문을 '너'라고 칭하며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글이 광화문을 친구처럼 대하는 감정을 버리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